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를 넘어 이 땅에 편안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6월 8일 (토) 제 1733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름성경학교로!

‘2019년 VBS 시즌...교회부흥의 촉제되기 위한 제안 소개

올해도 여름방학이 돌아오고 있다. 해마다 이 계절이 되면 각 교회에서는 VBS가 열린다. 그래서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목표를 세우고, 교사 강습회를 열고,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집행하며, 성공적인 여름성경학교가 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매년 성경학교가 끝난 후에는 어떠한가? 그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 준비하고 노력하며 2-3일 동안 모든 기운을 뺐 것은 사실인데 한 주도 지나지 않아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듯한 어린이들을 보면서 교사들은 허탈하다. 그리고 교회학교가 또 다른 영적인 침체를 맞는 것을 볼 경우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해심시키고 있는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는 과연 성경학교인지, 흥미 위주의 학교인지를 생각해보고 교회 학교에 연계되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교회학교 교육의 “유치함(?)”을 살펴본다.

텍사스 사우스웨스턴신학교 앤토니 베이커 교수(Anthony D. Baker)는 한마디로 VBS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짚어준다(“Learning to Read the Gospel Again”).

-아이들 쪽 상황은 더 심하다. 여름 캠프는 파도타기를 하는 예수, 혹은 모험가 차림을 한 예수를 내세우고, 주일 아침 교육에는 질 낮은 그룹 상담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고후5:19) 순전한 복음이라고 볼 수 없다. 아이들은 즐기는 척 하면서 우리의 비위를 맞추고, 언제쯤 좀 더 재밌는 것을 하게 될지 항상 궁금해 한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는 동안 애처롭게도 우리의 노력은 지루해지기 일쑤고,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예수 이야기에 표현된 하나님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게 된다.

오늘날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신앙의 현실성 혹은 진정성”이다. 대신 우리는 엉성한 바닷속 그림을 교회 벽에 그려놓는다. 켄다 크리시 띠과 론 포스터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놓고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교회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대부분을 피자를 사주는 데 썼다.

학습도구를 이용하는 때 인기 있는



놀이 과정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각학습은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내 아이들도 성경과 예배 관련 장난감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신앙적 놀이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학습도구와 밀접하게 연결시키다보면, 이러한 도구들이 ‘선반’으로 옮겨질 때 복음 역시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된다.

게다가 학교 환경은 ‘큰 교회’ 가는 경험과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도 수많은 인형과 장난감 트러플처럼 어른스럽지 못한 어떤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학습도구를 이용한 교육과정을 꾸준히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려는 바로 그 문제를 강화할 뿐이다. 크리스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목재로 만든 목동, 세례식 모형, 그리고 (슬프지만) 기독교와 같은 유치한 것들을 버릴 때가 왔다고 생

각할지도 모른다. -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그 답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신자들이 성경 즉 복음서를 읽도록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한다:

첫째, 여름성경학교를 성경학교 되게 해야 한다.

여름성경학교의 목표설정엔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학교는 교회 학교의 연장으로서 성경학교의 목표를 전도에 두어야 할지, 양육에 두어야 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특히 성경학교이기에 성경 중심 교육을 통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데 위야 한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본지 주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세미나 7월 8일(월) 오후 6시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양순관



김토마스(만규) 목사로 강사로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세미나가 7월 8일(월) 오후 6시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양순관에서 열린다.

강사 김토마스 목사는 현재 서울 CCM(Christ Centered Mission, 그리스도중심선교)교회 담임으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줄리아드 대학원 음악석사,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교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든 콘웰 Th.M(설교학)과정, 귀국 후 한국 총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총신대에서 ‘예배음악철학’과 ‘설교음성학’ 강의도 한 바 있다.

참석자: 목회자, 신학생, 찬양대

회 비: 10달러.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연락처: 미주크리스천신문(718-886-4400)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I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매일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CHEA 정회원

<p>학위과정</p> <p>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p>	<p>기독교 상담학부 공개강좌 참석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은 입학금 면제 혜택</p> <p>주제: “진정한 나를찾자” 일시: 6/22/2019 토요일, 오전9:30-오후1:00</p> <p>장소: 그레이스 라이브러리 GL1 강의실 LA Extension 강의 센터 운영(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p> <p>대상: 목회자부부, 신학생, 평신도 및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p> <p>강좌1: 참 자아발견을 통한 중독치유(술, 마약, 도박, 인터넷, 성, 종교중독 치유) 권오균 교수(Rev. Paul Kwon, Ph.D.) 주정부 인정 중독치유 상담사: CATC-V; LAADC-CA - 풀러신학대학원박사(Ph. D.)</p> <p>강좌2: “나라는 넌 누구냐?”(육하는 성질 치유) 리디아 전 교수(Lydia Chun Psy.D.) - 공인 임상심리학 박사, BIOLA</p>
---	---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발행인 칼럼 ●

개혁주의 목회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난 월요일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확장으로서 훈시(訓示)가 필요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개혁주의 신학교이니가 졸업생들에게 “개혁주의 목회자가 되라”고 훈시했다. 개혁주의는 선진들에게서 배운 것이요 스스로에게 강조하는 것이요 후학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개혁주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개혁주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한없이 높이고 그 영광을 크게 찬양한다. 개혁주의 목회자의 관심은 큰 교회, 사제, 명성과 정찬이 아니다. 그 우선순위가 내 구원의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높아진다면 나는 어찌되어도 좋다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갖고 있다. 사람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 사람의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개혁주의 목회자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인간은 피조 됨을 한시라도 잊지 않으면서, 기도에서 사역에서 삶에서 부르신 이를 원망하거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견(參見)하지 않는다. “네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개혁주의 목회자의 답은 간단명료(簡單明瞭)하며 영원히 유효(有效)하다. 그렇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웁습니다”라는 고백 외에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讚美)하는 일에는 입을 크게 여는 자가 개혁주의 목회자이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말씀의 권위 앞에 앞드리는 사람이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공헌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되찾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공헌이 이내 무너지기 시작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직접 계시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내팽개친 자들도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하였다고 하면서 성경을 여러 자료나 이야기 중의 하나로 전락시킨 사람들도 있다.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는 자들도 있다. 성경을 설교하려는 목적 외에는 열지 않는 자도 있다.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말씀이 아닌 경험이나 이성, 상황이나 유행, 사조(思潮)나 사상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 이런 태도들은 결코 개혁주의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다. 성경 앞에서 “이 말씀은 무오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니이다”라고 외치면서 그 말씀을 신학과 신앙과 목회 유일한 규범으로 삼는 것이 개혁주의 목회자이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복음의 전체성을 주장한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복음이 사람들의 삶에 부분적으로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음을 “나만 예수 믿고 천국가면 되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복음이 사람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찬양만을 부르며 인도하거나, 복음이 이 땅이 번영을 위한 것처럼 설교하지 않는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버리고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나약함과 비겁함을 가르치지 않는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온전하고도 합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 노동, 정치, 사회, 교육, 예술, 과학, 윤리 등 제 분야에 열린 마음과 도전적인 정신을 갖지 못한 목회자는 더 이상 개혁주의 목회자가 아니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개혁주의가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헛된 오만에 빠져 있지도 않다. 개혁주의 목회자는 끝날 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일을 도모(圖謀)함이 마땅하다. 목회를 끝내고 반드시 만날 분이 있지 않은가.

교회,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리더십저널, 피터 스카지로 목사의 교회가 세상방법 수용하기 앞서 주의할 점 소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세상의 것을 초등학교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의 문물과 방법론을 완전히 등져야 하는 것일까? 만약 그것을 사용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받아들여야 할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세상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성도의 삶에 맞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성경에 등장한 바 없고 교회에 오기 위해 타는 자동차도 성경에 등장한 바 없지만 모두 우리 신앙의 유익

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면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세상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성경적이지 못하다. 세상의 방법과 문물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특히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리더는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교회의 리더십에게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한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할 때 교회 리더가 주의할 점에 대해 말해준다.

피터 스카지로가 교회를 개척한지 2년이 지난 1997년, 그는 교회가 스페인어 사용자가 많은 지역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스페인어 예배를 시작할 계획을 세웠고 교회의 자문위원회의 동의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극구 반대했다. 영어예배도 자리 잡지 않았고, 리더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스페인어 예배를 위해 스페인어를 하는 새로운 목회자까지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피터와 동역자들은 진행을 마음먹었고, 그대로 스페인어 예배를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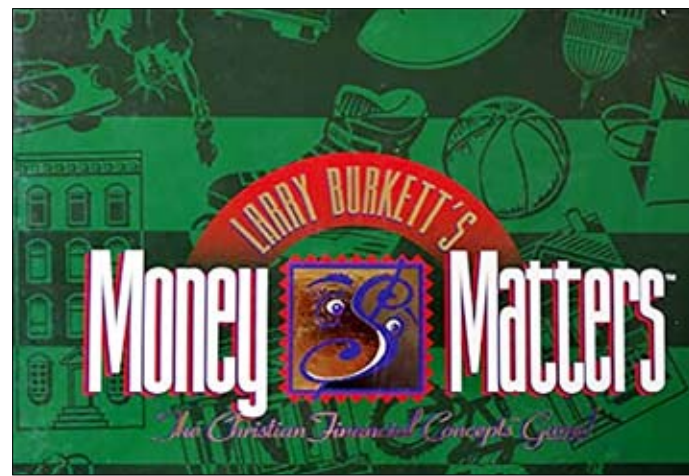
첫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새로운 스페인어 사역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거두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 눈앞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팀원은 수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 예배와 설교와 같은 외적인 요소는 중요하다. 그러나 외적인 문제에 고민하는 시간과 내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은 균형을 이루어야지 외적인 것에 모든 것이 치중되어선

2.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취하는 것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취하다 낭패를 본 수많은 리더들의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데 조바심이나 허탈을 통해 대를 잇는 자신들만의 계획을 실행했다. 그들은 결국 가정에 분란을 야기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돕는다는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해 애굽인을 살해하고 도망자가 되었다. 왕위를 놓치기 싫어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니느웨로 가기 싫어 자기만의 계획대로 다시스로 가던 요나 등등 수많은 예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는 시간 선행돼야
하나님의 슬기를 구하되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의 후임으로 청빙한 목회자는 3년 뒤 교인 300명을 데리고 나가 다른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는 이후 세 번이나 분열해 10년 만에 문을 닫았고, 하루아침에 300명이 사라진 피터의 교회도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다. 관계는 뼈격이고 사역들이 휘청거렸다.

이 모든 일은 피터와 그의 동역자들이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잘못된 가정들이 흔히 가져오는 3가지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도로 회의를 열고 마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이든 인도해주시는 것이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전략이 효과를

의 뜻을 구하고 있다. △모든 팀원은 알아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충분한 기도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회의에 참여한다. △수직적인 성장이 진정한 성장의 증거다.

이러한 가정들은 다시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함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성공을 편협하게 정의하는 것

출석률, 재정, 교인 숫자, 참여 등으로 성공을 판단하는 것은 비영리 기관이나 일반 기업의 방법이다. 물론 숫자는 성공의 증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숫자만으로 성공을 가늠해선 안 된다. 숫자가 올라간다고 반드시 성공은 아니다.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목회의 방법론을 주로 외적인 것에만 적용하게 된다. 사역 확장, 인재 영입, 전략, 소그룹 확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

안 된다.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가정들이 화목한가, 교회 영적 성숙도는 어떠한가와 같은 내실을 돌아보는 문제까지 성공을 판단하는 범주에 넣고 고민해야 한다.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하에 발에 불이 나도록 뛰더라도 내적 변화에 쏟을 시간과 힘을 남겨두지 않는다면, 바쁜 삶과 일정에만 묶여 있다면, 성공을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빨리 더 넓은 영역으로 실현되는 방법과 계획, 그 계획을 선불리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일치하는지 항상 질문해야 한다. 우리의 시각이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더 높으심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3.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는 것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 674-7982 (대표) (323) 665-0009 (광고)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 Fax (718) 8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15.5cm × 5.8cm	\$350.00		
전면 1/4	7.7cm × 11.7cm	\$250.00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250.00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시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름성경학교로!

〈1면에서 계속〉

여름성경학교에서의 성경 교육의 목표는 성경만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성경을 통해 구원이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며(딤후3:15),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있다(딤후 3:17). 성경학교는 성경학교다워야 한다. 물론이 학교나 운동회 학교가 아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준비과정에서, 성경교육의 시간표보다는 어린이를 동원하기 위한 흥미성, 오락성 시간표에 의해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사훈련을 받고 온 교사들은 채 정리가 되기도 전에 그대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교회 성경학교 시간표가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강습회 강의 시간 배정부다 성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름성경학교나 주일교회학교에서 어린이를 상품화해서는 안된다.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성경학교를 실시하는데 여름성경학교가 해외 단기선교와 함께 장년 목회의 악세사리로 티셔츠나 가방을 나누어주는 등 흥미 위주의 행사 학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성경학교를 교회학교 클래스에 연계해야 한다. 이에 교사의 역할이



크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학 직전에 성경학교를 실시하는데, 요즘에는 교회만이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원에서도 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끌어 모으

기 위해서 방학 직전을 시점으로 해서 캠프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부한 성경학교를 참석하기보다는 학원이나 학교의 캠프를 더 원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설사 성경학교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성경학교가 끝나면 시골이나 가족단위 여행을 떠나 교회학교의 클래스에 연계되지 못하고, 방학이 끝날 무렵에 하면 방

학숙제로 인한 부모님들의 비협조로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다. 성경학교 일시를 방학직후에 할 것인가? 방학이 끝날 무렵에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넷째,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바른 예배 갱신(회복)을 이뤄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어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회학교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어린이 예배 갱신으로 준비해야 한다.

전통적인 형식과 틀에 박힌 어린이 예배로는 예배가 죽고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어린이들은 교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갈 뿐 계속 머물게 할 수 없다.

그 무엇보다 어린이 예배 갱신이 필요한 때다. 단순한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예배가 아니라 어린이들도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며, 드라마나 멀티비전 등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 속에 문제들을 깨닫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생한 교제가 회복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 진행으로 기쁨과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4면으로 계속〉



시론

인보사 사태를 보며



최혜근 목사 (동고메리교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축구선수로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 명문 축구팀에서 활약하며 한국축구를 유럽에 알린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애가 무릎관절이었습니다. 연골이 닳았기 때문에 빠와 빠가 부딪혀 통증을 느끼게 되는 무릎관절은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중의 하나입니다. 빠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 주는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골을 재생시켜 관절염에서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마침내 세계최초로 골관절염 유전자 세포치료제인 '인보사'로 2017년 6월 제품허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인보사라는 약은 두 개의 주사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연골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주사이고, 다른 하나는 연골세포와 그 연골세포의 성장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주사제에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HEK293으로 불리는 세포입니다. HEK(Human Embryo Kidney) 세포는 1973년도 네덜란드에서 낙태한 아기의 신장에서 뽑아낸 세포로 무한증식이 가능한 세포, 곧 암세포이기 때문에 연구 및 실험용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런 세포가 인보사라는 주사제를 통해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포를 쥐에 투여했을 때 암이 생겼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약을 주사 맞은 사람들이 3,70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앞으로 적어도 10-15여년 정도 암세포가 유발되는지 여부를 추적 받아야 한다고 하니 마음 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약품을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 주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세포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를 했을까요? 코오롱 측에서는 '실수'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약품임을 알았음에도 빨리 보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이 두 달 전보다 75%, 인보사를 직접 제작한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81% 추락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정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주식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연구비로 보냈던 82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조사하겠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조작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제품이 초기검사에서는 제품허가가 되지 못했는데 이후 2달 뒤 위원회 멤버들이 바뀌면서 식약처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그 정보에 근거해 허가를 해주었으니 근본적인 책임은 제조사 측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이 제공된 자료가 제대로 된 올바른 자료인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 임무 자체를 책임 있게 하지 못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식약처(FDA)를 돌아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식품의약처(FDA)에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임상시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제1단계에서 신청된 물질의 63.2%가 통과되고 2단계에서는 30.7%, 그리고 최종 3단계까지 다 통과한 물질은 전체 신청수의 9.6%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자료가 말합니다. FDA를 통과한 물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쉽게 받아주기 때문에 미국 FDA 허가는 곧 세계적인 판매허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FDA는 가장 험난한 그러나 넘기만 한다면 가장 자부심과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기관입니다. 미국 FDA가 세계적인 지위를 갖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처리과정에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줄기세포 연구 논문조작으로 한국 사회를 술렁이게 했던 황우석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돈과 권력으로 적당하게 맞바꾸려는 어두운 움직임이 우리 시대를 아프게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교회가 혹시라도 빛이 아닌 더 큰 어두움으로 세상을 이끌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더 밝은 빛으로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pastor.eun@gmail.com

교회,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2면에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명확히 정하셨다. 우리는 24시간 일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다. 팀 역시 마찬가지다. 동일한 수준의 헌신과 열정을 모두가 갖지 못했다는 것에 분개하기 전에, 각자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는 것은 교만이다. 그러나 리더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현재 규모에서, 현재 에너지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혼돈과 상처, 그로 인해 떠나려는 사람들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리더는 의사결정구조의 3가지 함정에 빠

지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건강한 의사결정의 4가지 특징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1.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성공이다

빠른 속도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린다.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성공이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성공이란 없다.

오히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명성을 빼앗기고 결국 참수형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위대한자로 예수님께 평가 받

았다. 예레미야는 사역 내내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당했다.

그러나 각자 독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공이다.



2. 마음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사결정은 단순히 기도로 모임을 열고 토론한 후 기도로 마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마음을 모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

야만 각자의 생각에 몰두된 상태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슬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모든 교회 리더에게 당연한 기도지만 오히려 우리는 대부분 이미 스스로 많이 배웠고 안다는 자만에 빠진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께 슬기를 달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

4.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슬기를 구하되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한다. 몸과 정신과 체력을 쥐어짜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선물로 주셨다.

〈4면으로 계속〉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에 위치한 데이비스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신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미국내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이상을 졸업하신 분
교회에서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언어가 능숙하고 설교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사진포함)
본인/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한/영)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추천서 3부 (목사님 2부, 교인 1부)
최근 섬기는 교회주보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서류제출 방법 및 마감

온라인: <http://www.daviskoreanchurch.org/dkpcsc>
우편: 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 603 L st, Davis, CA 95616
제출 기한: 2019년 7월 20일까지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및 서류출은 e-mail (dkpcsc@gmail.com) 로 해주세요.

데이비스 한인교회 청빙위원회



Davis Korean Church
603 L Street Davis, CA 95616

GREAT TRUTHS OF THE BIBLE 알기쉬운 성경교리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위해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성경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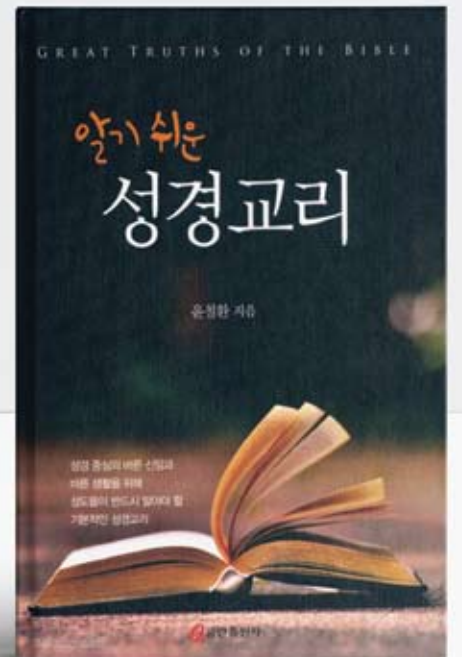
윤철환 지음

도서 주문 연락처: 215-527-2250
chulhwanyoon@gmail.com

가격: \$20.00(운송료 포함)

*선교사와 신학생은 \$10.00

성경교리는 성경의 뼈대와 같은 것으로, 성경교리를 바로 알면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단 사상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말에서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두 마리 강아지를 함께 기른 적이 있었다. 해피는 식성이 그만이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쥐서 못 먹는다. 가리는 것이 없다. 완전히 잡식이다. 그런데 코코는 신통할 정도로 자기 호불호가 분명하다. 웬만한 것은 결코 먹지 않는다. 자기 맘에

들어야 먹는다. 그런데 그 성격이 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분명히 강아지도, 사람도 성격은 타고 나는 것일까? 그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2400년 전 의사의 아버지로 불리던 히포크라테스는 네 가

지 기질이론을 주장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로 분류했다. 이 네 가지 기질이 두부처럼 하나씩 잘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기질이 적절하게 혼합되어서 그 중에 어느 기질이 더 많고 강한가에 따라서 본인만의 특이한 기질을 형성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또 한 때는 혈액형이 곧 성격을 형성한다는 속설이 있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은 이 혈액형에 기인한 성격을 비판 없이 수긍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대체적으로 O형은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남에 말에 움직이지 않는 강직하고 자부심이 강한 성격으로... A형은 소심하고 엄려가 많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다투기를 피하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이해했다. B형은 교제를 좋아하고 마음속에 오래 품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며 화통한 성격으로 통했다. AB형은 섬세하고 신경질적인 것 같지만 쉬워 보이면서도 차갑게도 느껴져서 잘 구분을 하기 어려워하는

성격타입으로 통했다. 필자는 A형인데 어쩌면 내 인생의 소년기에는 이 혈액형 성격이론을 비판 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하면서 살아왔다. 나(A형)는 소극적이어야! 성실하기로는 본인이 인정은 하지만 다투기를 싫어하고... 이는 앞서 보리라는 의욕 상실증 환자처럼 매사를 포기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우울하고 비사교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살다가 드디어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을 때 폐결핵이 발병되었다고 믿었다. 전국의 폐결핵 말기 환자들이 모이는 마산결핵요양소.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죽어나가는 생명의 끝자락 현장에 18세의 어린 소년도 섞여 있었다. 본능적인 생의 욕구적 몸부림 속에서 생명의 공급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 날 이후 나는 A형이 아니었다. 내 안에 새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의 피 J형으로 바뀌었다. 못한 나의 성격, 기

질, 능력, 건강, 환경... 어느 것 하나도 바뀐 것은 없었지만 내 안의 영적인 혈액형은 완전히 J형으로 변했다.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다. 영적 갈등에 나는 마시고 또 마셨다. 내 심장에 J형 피가 온 몸을 적실 때까지 마셨다. 그날 이후 나는 결코 A형이 아니다! 나는 J형이다! 소극적이지 않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A형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때때로 A형 기질이 나타나려고 할 때면 어김없이 그 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안되면 구하라, 찾으면 구하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의 그 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큰소리치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들이 눈앞에 가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본

래 나는 포기하는데 명수였다. 결코 어떤 일이든지 일주일을 넘겨본 적이 없다. 언제나 용수용사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J형이 되면서부터는 50년 동안 결코 포기를 모르고 살아왔다. A형이었을 때는 평생 싸워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J형이 되고부터는 장로들과도 싸움도 했다. 이걸 분명히 A형 기질이 아닌 J형이 그렇게 만들었다. 아직도 혈액 성격론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는가? 일관성 쌍둥이들이 대부분이 성격이 다르다고 한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믿어온 이 속설을 당장 갈아치워야 한다. 아직도 속명론, 혈액형, 기질론과 타고난 성격이라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수혈을 받으라! 누구든지 J형의 보혈로 가득하게 채우라! 그리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이기성 목사
(밴쿠버 삼성교회)



실천신학자인 워터 헨릭슨(W. Henlikson)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과 삶을 통해 제자화 되어 가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교신학자인 보시(D. J. Bosch)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도상 위에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즉 미숙에서 성숙으로, 부족에서 완전함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출발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은덩이가 은나팔'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덩이가 은나팔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은덩이가 은나팔이 되기 위해서는 은나팔을 만드는 전문가에게 붙잡혀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은덩이가 은나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은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귀한 은나팔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 인생의 새 창조주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가장 가치로운 은나팔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은덩이는 은덩이 그 자체만

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지식, 지위, 명예, 권세가 기쁨의 전부였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뒤에는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음으로는 은덩이가 은나팔이 되기 위해서 속이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속이 다듬어져야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은덩이 그 자체는 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은은 금속가운데서도 마찰소리가 가장 작습니다. 다른 금속들은 부딪칠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만 은은 소리를 내지 않습

니다. 자기가 소유한 지식, 지위, 명예, 권세가 기쁨의 전부였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뒤에는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은나팔은 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적인 방법도 쓰시고, 위로도 하시면서 우리의 속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작업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완벽한 은나팔이 될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까지 우리의 속을 다듬어 가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나팔이 되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즉 온전한 신앙고백

그런데 나팔이라고 해서 다 같은 나팔이 아닙니다. 어떤 나팔은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은 노래만 부르는 나팔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감정처리용으로 나팔이 사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라고 하신 은나팔의 사용목적은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전달용으로 나팔을 만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적 인물들이 바로 이런 기능을 다 한 하나님의 은나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계시 전달용으로서의 하나님의 은나팔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어떻게 은나팔로서의 사람을 살고 사명을 이루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보내진 하나님의 은나팔이었습니다. 은나팔로서의 사명을 외면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더는 구스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은나팔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크게 외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은나팔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보낸 말씀은 하나님의 은나팔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은덩이적인 것을 넘어서서 은나팔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은나팔을 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나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샬롬. gssolee@hanmail.net

은을 쳐서 은 나팔을 만들라

민수기 10장 1-2절

다. 은나팔 전문가에게 붙잡히는 은덩이만이 은나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못생겨도, 질이 좋지 않아도, 색깔이 곱지 못해도 은나팔 전문가에게 잡히기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은덩이 자체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의 재창조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해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에 이끌려 쾌락에 붙들리고, 정치에, 권력에, 자기의 꿈과 생각과 편견에 붙들려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과 마약과 같은 것에 붙들려 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으로도 가치가 있어서 은덩이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즉 소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은덩이가 그 소유의 기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른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은나팔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은덩이 자체는 단지 소유의 기쁨만을 주지만, 은나팔은 사명의 기쁨을 줍니다. 나를 넘어서는 기쁨을 줍니다. 은덩이는 결코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기쁨이 바로 은나팔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은덩이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은나팔의 기쁨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은덩이의 기쁨에만 머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속에 있었

니다. 이 세상에는 은덩이 같은 성도가 있고, 은나팔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의 기쁨만 먹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서 나팔처럼 울리며, 전하며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덩이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속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은덩이를 비워내야만 가능합니다. 속을 비워내야 말씀이 그 속에서 공명을 만들어 내고 공명된 그 소리가 청아하게 밖으로 울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속이 다듬어지고 완전히 비워져야 청아한 나팔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자마자 은나팔로

이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은 86세까지 사역을 하며 로마 위정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박해자들이 화형 직전에 살려줄 테니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회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평생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여쭙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는가?"라는 고백을 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은나팔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나팔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나팔은 자신의 감정 처리용이 아니라 계시전달용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름성경학교로!

(3면에서 계속)
다섯째, 성공적인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온 교회가 나서야 한다.
여름성경학교는 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사역이다. 사역자, 담임 목회자는 먼저 축제가 시작됐음을 선포한다. 어린 아이들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무방비로 물들어가게 세대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함을 강조한다. 여름성경학교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만큼 모든 성도가 여름성경학

교의 교사와 봉사자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예산이 부족하면 자선바자를 열어서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온 성도의 마음을 모으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동참하게 할 때 청장년 성도 역시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이 생기고 다른 성도를 한 가족으로 여기게 된다. 이는 교회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진다. 결국 "말씀"이 다시 교육되어야 한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으며 잘못된 가치관을 퍼뜨리고 심지어 슬픔과 좌절을 안기지만,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에 시선을 고정할 때 세상에 맞서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교회가 불안정한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말씀뿐임을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침으로써 다음 세대의 성장을 온 교회가 목격하는 여름으로 만들어보자!

교회,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3면에서 계속)
일하지 않을 안식일을 명확히 선물로 주신 것과 같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할 결정들을 해야 한다. 결론으로, 세상은 자주 한계를 뛰어 넘으라 말한다. 많은 수

의 성공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허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면의 성공을 간구할 때 백성이 미리 알지 못한 외적인 성공까지 함께 주실 것이다. 리더는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 교회가 함께 시간을 갖고 옳되리게 하는 사람이다.

전도와 부흥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위해 나아움에 있어서 성경을 들고 오지 않는다. 전화기를 들고 쉽게 성경을 펼친다. 빈손으로 예물 없이 나온다. 헌금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 각자의 전화기속 은행 앱을 열어서 보낸다. 그날 감정과 기분을 따라 헌금액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은혜 받은 마음이 없으면 헌금이 없을 수도 있는가? 신앙의 퇴락을 증거하는 일들이다. 소리 내어 기도할 줄 모른다. 꼭 소리 내어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기도소리가 조용한 성도, 교회를 가보라. 저들 가운데 영적침체의 어둠이 자리하고 있음을 본다. 영적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세상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전도는 더욱 더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전도는 세상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사명의 최우선 명

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전도는 철저하게 성도의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관계전도 혹은 인격전도 등의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본래적 원리는 듣는 즉시, 은혜를 받는 즉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하는 직접전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 조국과 세계 열방의 선교지들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온 것이다. 그러한 직접전도의 방법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종차원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세상을 진동케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다.

세상의 회복, 전도의 회복.

전도는 사명에 대한 명령과 복종이다. 주의 음성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전도의 시작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전하

도' 라고 하는 증거 했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핑계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성경적인 전도는 단지 '익은 곡식을 찾는 것'이다. 전도가 사람의 기술로 전략해 버렸음을 많은 전도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도는 '나의 신앙고백이 나 나의 신앙의 간증'임을 기억해야 한다. 전도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 하는 것일 따름이다. 어렵지 않다. 주님은 이와 같이 가장 단순하고 쉬운, 많은 배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누구나 입을 열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을 진동케 한 것이다. 한 가지 은혜 받음을 통해,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에 순종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오신 것이다.

세상의 빛, 전도

전도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최고의 등불을 밝히 켜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서 이 기쁘고 벅찬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형제에게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게 된다. 또한 "나를 좇으라"하시며 개인 전도를 하였고 "와 보라" 초청하시며 개인 전도를 하셨다. 전도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롬10:14-15)하셨다.

원색적 복음, 세상의 변혁

복음전도의 일들이 원색적일수록, 세상은 핏박과 고통을 준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그 한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맺혀지는지 모른다. 전도가 세상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자요, 미국회사에서 직장생활하며 산 지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는 행복하다는 감정을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토렌스에서 미세스 정

A: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인간의 3대 기본권으로 생명, 자유, 행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났지, 불행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일본사람인 "가와기타 요시노리"란 사람이 쓴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이란 책을 가끔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나 행복을 위한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를 수십 개 소개하는데 그 중에 3개만 소개합니다.

첫째, 행운이나 불운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아들이 입학시험에 실패하고 딸은 연인과 다툰 끝에 헤어집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들의 입학시험 실패는 새로운 진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런지 모르고, 딸이 싸우고 헤어진 애인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아주 못된 놈이었는데 모릅니다. 남편의 교통사고로 입원한 것은 오히려 병원에서 몸 전체를 점검하여 큰 병을 예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것

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를 긍정의 시각,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플러스 발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지 마라. 행복은 이미 손 안에 있다. 마테를링크가 쓴 파랑새 이야기를 아시지요? 행복이란 파랑새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오랜 시간 헤매고 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실망해 집에 와 보니 자기 집 처마 밑에 바로 그 파랑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판 데서 찾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행복은 현재 내 가까이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누리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거든 일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이나 일을 힘들게 노동한다 생각 말고 노는 기분으로 즐기며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소니사의 창업주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노동으로 생각지 않고 아주 즐겁게 일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한다하는 생각보다 노는 것처럼 기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공포가 두려워서 달아나면 그 공포는 2배로 늘어나지만 공포에 맞서 대항하면 그 공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직장이나 사업체의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면 일이 훨씬 쉬워지고 능률도 오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바로 깨닫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죄 용서함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되게 만드는 두 번째는 이웃과의 만남인데 사람은 만남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만남을 주신 이웃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그도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을 깨우는 복음 전도

- 은혜의 열매, 세상의 변화

령이다. 부흥을 말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한다. 끊임없이 교회는 부흥을 말하고 이를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밤낮으로 목회자의 소원,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소원은 부흥이어야 한다. 부흥을 맞았는가? 부흥을 맞은 사람들은 그 맛을 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향기와 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드러난다.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단순한 성경의 원리가 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흠어지면 전도한다'이다. 예배와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면 전도는 당연히 된다. 여러 가지 전도법을 가르치지만 방법론이 중요하지 않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지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로 나타나고, 교회를 사랑하면 전도로 나타난다.

골방의 은혜, 세상의 복음

사람의 생각으로 많은 프로그램 만들고 기술적인 전도방법을 내놓지만 그보다 전도자의 신앙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영적실력이 있는 교회라면 건물은 다음 순서이다. 오히려 영적 실력이 없이 쌓아올린 건물은 복음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가? 저들은 골방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가지고 간다.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한결같이 은혜 받은 즉시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를 만났다", "와 보라" 하였다. 그리고 저들이 전한 그 복음이 마침내 성과 시내를 소란케 하며 변화시키는

는 사명에 즉시 복종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던 자리에 함께 있는 120명도 모두는 전도 전선에 내 몰리게 되었다. 강제성이 있었는가? 아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들 앞에 죽음이 있다하였을지라도 그들은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기에 순교까지 하지 않았는가?

은혜가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전도의 방법을 찾는다. 전도 왕이라고 해서 간증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며 손을 끌었더니 따라 오더라고들 한다. 성령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환상

즉각순종의 형태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가 '고상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상의 유혹'이다. 복음을 가로막고 말씀대로 입을 열어 전하는 증인의 삶을 방해하며 전도하지 않는 삶을 그럴 듯하게 합리화 시킨다.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을 무식한 방법이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말보다 행위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행위의 선행이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쁘게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에 비례해서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선한행위의 완전함으로 상대방을 복음에 굴복케 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한 교만이며 무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런 관점들이 사도들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세상에 전도하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이것이 전함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실제, 전도가 무엇인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지가 아니라 전하는 일이다. 성도들이 큰 명예를 얻거나 큰 업적을 남긴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도를 통해서 얻은 그 영혼의 열매는 천하를 얻음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 더불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전도의 사명자가 되어 이 땅의 부흥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나 니고데모나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전도하셨다. 이렇게 전도하신 이유는 인격은 개별적이며 복음은 개인이 받는 것이며 생명이 개인 하나 하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양 일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아흔 아홉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전도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양 일백 마리를 하나하나가 모여서 된 것이다. 천만이 있어도 그중에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없는 것과 같이 개인전도도 개개인에게 전한 예수님이 쓰시던 전도방법이다.

"와 보라" 하고 초청하면 초청 받아 오는 자는 반드시 전하시고 인자하시며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만난 감격을 역재할 수 없어 "내가 메시아를 보았고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가장 완전하고 복된 부르짖음이다. 전도는 성도의 열매이므로 열매를 얻기 위한 힘씀이 있어야 한다.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화와 잔치를 벌여야 한다. 사람들의 귀에 전해지도록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예수복음이 세상의 빛이고 소망임을 확신 가운데 전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세상을 섬기는 일은 없다. 수많은 구제와 봉사보다 한마디의 복음을 전하라. 세상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분델칸디(BUNDELKHANDI)



이다. 인도는 4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질 수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 북부 하천의 팽야 지역, 데칸 고원, 동서부 가츠 산맥이 있다. 다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후조건 또한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열대기후에서 온난기후까지 매우 다양하다.

1억천5백만 인구의 분델칸디족은 주로 마다 프라데시에 거주하고 있고 그 외 자카운, 잔시, 하미르푸 그리고 우타 프라데시의 반다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인도-아랑(Arayan)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정확한 생활양식과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삶의 모습

인도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사회적 여러 집단들이 복합적으로 모인 하나의 모자이크와 같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하나의 민족집단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중국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인도의 인구는 9억3천5백만 명 이상이다. 전체적인 인구밀도는 1평방마일당 762명

인도 인구의 7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겨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수확하는 농부들이다. 그들의 농지는 극히 작으며 대개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족 특히 뽕이 있는 소, 물소, 말, 노새 등을 키우는 것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동물들은 고기로 이용되기보다는 거의 전부가 짐을 지는 짐승들이다.

인도 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중심적이다. 많은 힌두교 조직들은 엄격한 "카스트"(caste, 사회계급) 제도를 포함해 세속적인 인도 사회에도 폭넓은 영향력을 지닌다. 카스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혈통, 종족, 족속을 의미한다. 인도 사회는 일반적으로 "동족결혼"(같은 카스트 안에서 서만 결혼하는 것)을 하는 위계적인 카스트들로 나뉘어져 있다. 카스트는 직업이나 친족

관계와 혈통에 의해 규정되거나 약간의 예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는 사회조직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족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카스트 제도에서의 분델칸디족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양식은 적절하게 묘사될 수 없다.

다수의 분델칸디족이 살고 있는 우타 프라데시는 인구밀도가 평방마일당 1,224명으로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우타 프라데시에는 힌두교 성지 7개중 4개(하리드워, 마추라, 바라나시 그리고 아요다)가 있다. 아요다는 7세기경 "라마(Rama)" 신 '비슈누'(우주의 주재자)- 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곳으로 많은 힌두교도들이 믿고 있는 곳이다. 무슬림들도 바브리 모스크가 1500년 초에 그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신성한 곳으로 여겨고 있다.

로 여겨고 있다.

신앙

분델칸디는 95%가 힌두교도이고 기본적인 힌두 문화와 전통을 따르고 있다. 약 AD 1200년에 "힌두교"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져 왔지만 힌두교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 종교는 창설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교리 구조도 없다. 그것은 이론보다는 오히려 생활 방식에 대한 부분이 많으며 종교라기 보다는 철학이다. 서양종교와 반대로 힌두교는 기원도 없고 믿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관습과 생활양식이 수백년간 매년 큰 변화를 통해 된 신앙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힌두교도들은 최고의 존재를 믿는다. 일부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경외하고 오직 야채만 먹는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사원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즐긴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매우 밀접한 것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다. 또한 대부분은 힌두교도들은 "브라만"(창조자), "시바"(멸망자), "비시누"(보호자), 신적 존재인 "자크트리"를 예배하고 또한 다른 작은 신들, 만신과 환생, 배우자들, 자식들을 경배한다. 환생에 대한 믿음(계속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굴레)은 힌두교의 특징으로 잘 알려진 것들 중 하나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분델칸디인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예수' 영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번역된 성경은 아직 없다. 소수의 분델칸디 크리스천들에게는 격려 받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도울 제자화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 귀한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 기도와 사명자들이 요청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시리아 내전포화에 '예수의 언어' 아람어 위기

8년째 계속되는 시리아 내전의 여파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유명한 아람어(Aramaic)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AFP통신은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다마스쿠스 외곽 말룰라에서 주로 쓰이는 아람어가 절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아람어 전문가인 조르주 자루르는 "내전이 지속된다면 아람어는 5~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말룰라 주민 대다수도 아람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아람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전 히브리어와 함께 사용한 언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 말한 "달리다 굶(소녀여, 일어나라)"이라는 표현은 모두 아람어다. 예수는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더 많이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인 셈어(Semitic language) 계통인 아람어는 기원전 10세기쯤 출현해 중동 전역에서 널리 사용됐다. 기원전 500~6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공용어로 통용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에는 기독교도의 최초 정착지 중 하나인 말룰라 지역에 한해서 사용된다. 지금은 말룰라 주민 중 20% 정도가 아람어를 구사하고 있다. 말룰라 총장인 엘리야스 탈랍(80)은 "우리는 2000년 넘게 예수의 언어를 마음속에 간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아람어의 존립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시리아 반군은 2013년 12월 말룰라를 장악하고 교회와 수도원을 차례로 파괴했다. 이 과정에서 말룰라 주민들은 정부군이 관할하고 있는 다마스쿠스 등으로 쫓겨나 흩어졌다. 7개월 뒤 정부군은 말룰라를 탈환했지만, 내전은 지속되고 있어 아직 주민의 3분의 2가 돌아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아람어를 계승할 수 있는 후세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루르는 "내전 이후 타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람어를 먼저 배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란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해도 젊은 세대가 아람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다. 말룰라 내 유치원에서 아람어를 가르치는 60대 교사는 "아람어는 대대로 전수된 고향의 언어"라며 "(아람어를 가르칠 수 있는) 후임자가 없는 탓에 은퇴할 수 없다"고 AFP에 말했다.

"친동성애 교단과 결별" 대가는 혹독

하와이 광야교회(구 하와이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는 소속 교단의 친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다 예배당과 교회 이름까지 뺏겼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들판에서 '광야' 생활을, 지난 3월부터는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연합감리교회(UMC)가 2016년 동성애자 감독을 세우고 지난해 11명의 감독이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면서부터다. 참다못한 한 목사와 성도 80여명은 지난해 9월 교인 총회를 열고 '성경과 믿음을 지키고, 더 이상 동성애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UMC 탈퇴를 결의했다.

교단 정책에 반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UMC 캘리포니아-퍼시픽연회는 '감리교 정책·지시 불복종'을 이유로 한 목사를 전직 제명했다. 예배당에도 쇠사슬이 감겼다. 한 목사의 의료보험과 연금이 중단됐고 교회 부동산과 금융계좌도 모두 폐쇄됐다.

성도들은 소송 대신 광야의 길을 선택했다. 하와이 진주만이 보이는 닐 브레이스텔 공원에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오전 7시부터 십자가를 세우고 가루수에 영성 자막을 걸었다. 마이크와 스피커 등은 승합차로 날랐다. 하지만 그마저도 UMC 재산이라는 이유로 뺏겼다. '광야' 예배는 6개월간 진행됐다.

권나나(60·여)씨는 "지난해 9월 주일 예배당에 쇠사슬이 채워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른다"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 생활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공원과 셋방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천국이었다"고 회고했다. 새벽기도회는 작은 교회를 빌려 드렸다. 하와이 이민 사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뜻을 같이하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광야교회의 서러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예배당 소유자인 갈보리오순절교회와 공간사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2주 내로 나가 달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한 목사는 "신앙생활의 기반은 성경인데, 교회가 성경을 부정하면서까지 운영된다면 그것은 세상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배신"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현실 세계에서 진리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그에 따른 희생이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희생의 결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있다. 지금도 광야생활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끝없는 미스터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를 유발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건의 미스터리 행적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바이킹 시건이 앞서가는 허블레아니에 사전통보 없이 추월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목격자 증언이 2일 나왔다. 바이킹 시건의 선장은 사고 발생 직후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문이 쌓이면서 선장이 제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한 유람선의 선장 톨나야 졸탄은 헝가리 민영방송 TV2 인터뷰에서 "바이킹 시건의 선장은 사고 전 교신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당시 주파수를 몇 차례 바꾸고 있었지만 바이킹 시건이 허블레아니에 추월 의사를 밝히거나 주의를 촉구하거나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 내용의 교신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이킹 시건의 선장이 침묵을 깬 건 허블레아

니가 가라앉은 뒤의 일이다. 하지만 그가 여러 외국어를 섞어서 쓰는 바람에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톨나야는 "바이킹 시건의 선장은 한 문장을 말하면서 영어와 독일어, 러시아어를 뒤섞었다"며 "주변 다른 선박과 교신을 하고서야 사고가 났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는 사고 후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도 정확히 언제 침몰 사고가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허블레아니의 선사 파노라마 텍이 소속된 헝가리 여객선협회 역시 바이킹 시건의 무리한 추월 시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객선협회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사고는 추월 시도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반잡하고 협소한 곳에서 추월을 하려면 미리 선행 선박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부다페스트 중심가를 지나는 다뉴브강의 4km 구간은 매우 혼잡하고, 저녁시간에는 평균 70여척의 선박이 동시에 운항하기 때문에 교신은 필수적이다.

사고 당시 바이킹 시건의 선장이 선장실에 없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지 매체 오리고는 "바이킹 시건의 선장실에서는 총돌 2분15초 전부터 허블레아니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장이 선장실에 있었다면 2분15초 동안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실제로 선장실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선장의 중대 과실이 하나 더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장은 부주의 및 근무 태만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년, 최대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지 매체 블리크 등에 따르면 바이킹 시건의 선장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100만원)를 지불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헝가리 검찰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헝가리 현지인 교회, 희생자·가족 위한 기도 물결

헝가리 현지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을 위한 기도와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 수도 부다페스트뿐만 아니라 헝가리 전역으로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4일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다페스트의 헝가리개혁교회(RCH)는 참사 다음 날인 지난 달 30일부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행사를 벌이고 있다. RCH는 한국 기독교장로회와 교류 협력 관계를 지속해온 칼빈과 단일 개혁교단이다. 이스테반 보가디 스자브 목사(Bishop)는 "우리 한국인 형제자매 교인과 함께 위로를 전한다. 그들 역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언제든 도왔을 것"이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이스테반 목사는 3년 전 한국의 경기도 안산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메시지에서 밝혔다. 그는 "당시 말을 직업 삼은 목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며 "교인 부모들의 추도가 있고서야 우리는 감정을 추스릴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참사가 일어난) 지금은 깊은 고통을 느낀다"면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던 하나님께 위로를 구한다. 교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적었다.

추모 분위기는 헝가리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부다페스트에서 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헝가리 제2의 도시 데브레첸에서도 모금이 진행 중이다. 이곳 RCH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난 선박 사고에 경악과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기부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요일이었던 이날 데브레첸 교회에서는 사고 희생자 추모 예배가 열렸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첫 추모예배에서 모금한 1000달러는 추경거리 한국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다페스트 시민들의 추모 물결도 커지고 있다. 다뉴브강 인근에선 3일 오후 7시 머그트 다리 위에 현지 주민과 여행객 등 400여명이 모여 함께 한국 민요 아리랑을 부르는 '합창단의 밤' 행사가 열렸다. 노을 진 다리 위에서 저마다 손에 하얀 악보를 쥔 시민들은 아리랑 곡조를 20여분간 따라 부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미국대행, "한미연합훈련 재개 필요하다 생각 안해"

패트릭 새너헨 미국 국방장관대행은 2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너헨 대행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대회) 폐막 후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새너헨 대행은 또 "훈련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있는 병력은 필요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새너헨 대행은 한국에서 논의를 가진 뒤 관련 주제에 대해 좀 더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3일 서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북한 군사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한다.

새너헨 대행은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물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를 처형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특별대표는 스티븐 미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정상회담 북측 실무협상을 맡았던 인물이다.

美 부부가 사산된 아이 시신 공개한 이유

미국의 한 부부가 사산된 아이의 시신을 공개했다. 아이는 배 속에서 14주 만에 사망했지만 자연 분만을 통해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세상으로 나왔다. 부부는 "20주가 되지 않은 아이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매체 더선 24일 보도에 따르면 사람 서덜랜드(40)는 자신의 배 속에서 14주 만에 사망한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아이의 몸무게는 약 26g, 몸통 길이는 약 4인치에 불과했지만 얼굴과 손, 발, 손톱까지 모두 형성돼 있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20주가 넘지 않은 태아는 인간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수술을 통해 사산아를 꺼내고, 아이의 시신은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폐기 처분한다.

사산된 사산의 아이의 시신도 곧바로 쓰레기 통으로 향할 위기에 놓였지만 그는 자연분만을 택해 아이와 만났고, 부부가 함께 아이를 묻어 주기로 했다.

위클리프와 롤라드

존 위클리프(1320-1384)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한 신학자였다. 영적 어둠에 잠긴 중세교회의 오류를 분명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그로부터 약 150년 뒤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요구하며 외쳤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은 선구자였다.

어떻게 위클리프의 개혁사상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 그는 캔터베리대학의 학장까지 지낸 신학자였지만 동시에 '가난한 설교자'들을 훈련시켜 파송하였던 활동가였다. 중세로마교회는 그의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그에게 영향을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1384년에 위클리프가 사망한 뒤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이 지속되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자들을 '롤라드'(Lollard)라고 부른다. '롤라드'라는 단어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화란어 단어 중 '중얼거리는 자'를 의미하는 명사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일 남부에서 사용되던 단어 중 '자장가'를 의미하는 룰렌(tullen) 또는 아인룰렌(einlullen)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아무쪼록 이 호칭은 상대를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롤라드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무척 다양했다.

초기 롤라드에 속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위클리프의 개혁사상을 충실하게 따랐다. 특히 초기 지도자들은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으나 학문적으로 위클리프에 미치지 못했기에 주로 그의 사상에 호소하였다. 추종자들이 증가되면서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형태의 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기와 후기

롤라드와 기존 성직자들 사이의 논쟁은 주로 성찬의 본질 및 성상과 성인에 관계되는 것이었다. 1394년 롤라드는 세력을 규합하여 '열두 가지 결론서'라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문서에는 로마교회의 교리와 관습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위클리프의 사상을 재차 주장한다기보다 더욱 발전시켜 더욱 타락의 길로 치닫던 로마교회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로마교회 역시 이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더욱 가혹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1401년의 의회는 이단을 화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온갖 비인간적인 고문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비교적 온건한 분위기가 지속되던 영국교회사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교회가 롤라드를 이단으로 정죄한 상황에서, 사상을 철회한 자들에게는 대가를 지불하는 유혹의 손길도 있었다. 개혁적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

15세기 초에 옥스퍼드 대학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까지의 위클리프의 사상이 전수되었으나, 대학 평의회를 통해 엄격한 규율을 제정하고 학생들을 통제하였다. 매달 학생들을 조사하게 하다가 아예 1411년부터는 롤라드 사상을 가진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게 하였다. 롤라드 운동의 중요한 중심축을 상실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개혁을 외치던 롤라드 운동이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였다. 후기 롤라드 운동이 이런 어려움

기려하지 않았다. 결국 그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다. 그가 체포되었던 소식은 전해지자 그를 구출하려는 계획을 꾸미게 되었는데, 이에 관계된 수십 명의 롤라드가 교수형에 당하는 비극이 연출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롤라드 순교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작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교회는 자신들의 변화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하여 신앙의 행위라는 명목으로 줄곧 악한 행위를 정당화한 것이다. 그럼

그들도 위클리프의 중심 개혁사상이었던 성찬에 대하여 화체설에 반대하였다. 사제가 기도를 한 뒤에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위클리프는 물론 16세기 개혁자들의 사상과 일치한다. 그들이 교해성사에 반기를 든 이유는, 성직자가 사죄선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위클리프도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자명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연옥과 면죄부 등을 노골적으로 반대하였다. 나아가서 교회의 재산과 권한 및 권력의 남용을 지적하면서 초대교회와 교부들의 사상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롤라드가 위클리프의 사상을 발전시킨 예를 들어보자. 성상과 성지순례에 대하여 위클리프는 극단적이지 않았다. 그는 성상이 올바르게 사용되면 글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지녔다. 성지순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신학적 토대가 없었다. 그러나 롤라드는 성상을 매우 단호하게 배격하였으며, 일부 롤라드파는 성상파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성지순례 역시 성지순례라는 제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불경스러운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도리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방문하는 것이 정당한 순례라고 하였다.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37)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 나아가서 순교에 대한 각오까지 요구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롤라드 운동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전기는, 이 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철회한 시기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필립 레피던(Philip Repydon)은 주기경의 자리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 환란과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보다 소중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귀한 진리이다. 롤라드 운동에 생명력이 더해졌다. 교회의 개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숭고한 신앙인들이 배출되기 시

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가 시작한 개혁사상이 16세기 종교개혁 시기까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롤라드의 사상

롤라드는 성경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개혁사상을 정립하였다. 그들은 모국어인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

성경적 개혁

롤라드의 기본사상은 16세기 개혁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롤라드가 위클리프와 16세기 종교개혁을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위클리프의 교훈대로 성경에 근거하여 사상을 정립하였기 때문이다. 롤라드가 핍박과 순교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자체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위클리프, 롤라드, 16세기 개혁자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소중한 교훈이 있다. 개혁은 투쟁 또는 혁명과 다르다. 이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거나 커다란 목소리를 지닌 자들의 주장이 아니다.

진정한 개혁은 성경의 가르침에 마음의 고개를 숙이는 일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결단이다. 지속적으로 개혁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위클리프 성경중심 사상이 롤라드로 이어져 종교개혁까지 연결
성상 절대배격, 성지순례제도는 성경에 없는 망상으로 발전시켜

를 얻었다. 나아가서 롤라드를 박해하는 앞잡이가 되었다.

설교자로 명성을 날리던 존 애쉬튼은 로마교회의 성찬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였다. 교회는 그에게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하도록 허락하였다. 로마에 항소한 뒤 2년간 옥살이를 하였던 니콜라스 헤리퍼드는 탈출 뒤 영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체포된 그는 교회로부터 결국 카르티지오회 수사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철회하며 무너지는 상황은 롤라드운동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교회는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매사를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작한 것이다. 첫 순교자가 배출되었다. 윌리엄 소우트리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설교를 통해 롤라드 사상을 전파하였다. 화체설에 반대하고 성상과 성지순례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을 당당하게 외쳤다. 1401년 성 베드로 성당 참사회에 소환되어 장시간 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상을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가 남긴 말이 무척 마음에 다가온다. "나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그 십자가를 숭배하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리스도를 숭배한다."

롤라드 운동의 지도자였던 하원 위원 존 올드케슬은 자신의 사상을 숭

상하였다. 성경이 지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롤라드의 사상이 상황과 시기로 인해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공통적으로 성경만 합법적이며 유효한 교리의 근거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혹자는 이들을 청교도 사상의 뿌리로 간주하기도 한다.

위클리프가 롤라드에게 전해준 가장 중요한 사상은 성경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위클리프의 사상이 롤라드를 통해 계승되거나 발전시켰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입장에서 롤라드를 줄곧 논의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and a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Roman Catholic, Protestant, and others.



성경도 신앙 (79)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8) 성경에서 빛나간 청교도 시대 개관과 현재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신약의 가르침의 통제를 받는 것을 멈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중세에 카톨릭교회라고 하는 가공스러운 폭군이 생겨났다. 로마교회가 안전하게 자기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이면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만일 교회와 국가의 연합에 관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그런 권세를 준다면, 결과는 또 중세 로마카톨릭과 같은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청교도가 시작되는 영국의 역사가 그렇다. 헨리 8세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되지 못하고 결국 로마카톨릭 교도로 있다가 죽었다. 그가 시도했던 변화는 자신을 국가의 최고 통

도자들은 그 특별한 요점에 있어서 메리 여왕을 대항하는 어떤 논증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진상을 알게 되었지만 그 오류는 결코 고쳐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할 때만 해도 이 논점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그 엘리자베스 1세를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들은 존중을 받았지만 그들이 패배 당하였고 그들 중 어떤 지도자들은 목시 연합을 드러내 보이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신약이 그어준 분명한 구분선을 지켜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교회를 폭군적으로 강압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제임스 1세는 더 나아갔으며, 찰스 1세는 그보다 훨씬 더 악독하게 나아갔다. 그 일의 의회와 왕당파 사이의 전쟁을 통해 끝이

그들은 “교회가 우리를 못살게 한다”는 말을 자주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교회들이 신약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세속적인 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가 왕이나 재벌이나 백만장자나 경영자나 그 누구든지 간에, 또 그가 어떤 권력을 쥐고 있든지 간에, 기독교회 영역 속에 그 사고방식과 입장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을 허락하는 순간에 복음 설교는 희석되게 된다. 교회사에서 자주 그것이 희석되어져서 때로는 교회가 보수적인 부호층을 옹호하고 지지해주고 강화시켜 주기위해 존재하며, 보통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권층을 비호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런 일들에 섞이면 교회의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 설교의 순결성이 손상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것이 혼합되면 반드시 외식을 산출하기 마련이다. 어떤 지역이나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게 되면 외식자들을 내기 마련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수세기에 걸쳐 저주거리로 존재하였다. 교회와 순결성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떤 특별한 특권층 부모나 그 자녀이거나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면 외식자들 외에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로마카톨릭주의에서 뿐

신약 가르침 통제 받는 것 멈추면 복음 순결성 손상돼 교파가 둘 이상이 생기면 국가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

치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세우려는 것이었다. 크래머 (Crammer) 같은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이들마저도 그 일에 협조하려고 하였다. 어느 시점에까지 헨리 8세의 통치의 좋은 점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는 존 후퍼 감독(Bishop John Hooper of Gloucester)같은 프로테스탄트들과 몇 사람들을 동시에 핍박했다.

에드워드 6세의 통치 기간 중에는 훨씬 더 나아졌다. 이 국가교회의 원리를 채용했던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은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했으며, 그 모든 것이 제 길을 잘 찾아서 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불행한 일은 에드워드 6세가 매우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카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Queen Mary)이 등극하게 되었고, 그녀는 프로테스탄트에게 등을 돌리면서 교회에 속한 일들을 주장할 최상의 권리를 가졌는데, 그녀는 그런 권리를 왕에게 넘긴 자들이 너희 자신들이라고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메리 여왕은 자신의 힘을 다해 헨리 8세가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의 목인 하에 빼앗아 자신에게 들렸던 바로 그 권세들을 거머쥐려 하였다.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은 무서운 핍박과 결과를 맞보아야 했다. 그러나 크래머나 다른 지

났고 찰스 1세가 참수 당하는 일로 결말을 맺었다.

역사는 실제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로마카톨릭주의 아래서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 아래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유교회(Free Church) 원리와 성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만일 교회와 국가 사이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애매모호하게 된다면 반드시 복음과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방향으로 결말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다. 또한 그것은 복음의 순결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자유교회 사람들도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혼란을 겪는 동일한 실수에 빠져들었다. 16세기의 미국교도들, 자유교회 사람들도 동일한 오류에 빠져 넘어졌다. 그들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원리는 정확히 똑같다.

예를 들어 제분소나 공장을 소유한 공장 소유자나 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집사들이었다. 그런 이들이 공장에서 벗어나서 하던 일을 교회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층은 기독교와 자본주의, 현상유지를 고집한 보수주의와 기독교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안에도 남아있다. 사람들은 한 전문직의 멤버나 지방의 지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떤 탁월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 국가 교회라는 개념이 많은 나라에서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다. 그 이유는 교단들과 교파들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이다.

교파가 둘 이상이 생기면 국가 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단에 속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피상적으로는 하나의 국가 교회의 정당성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되고 여러 교단과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면 국가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해체된다. 왜 이 교단이 아니라 저 교단이 국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복종하지 못하고, 대신에 그 이전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떤 전통을 이행하는 일을 해왔던 결과로 우리가 이런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다. 격변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을 지키는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yoo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믿음의 씨앗

여름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방문 중이다. 이번에는 딸하고 함께 방문할 수 있어서 언니들이 조카와 동생을 위해 계획한 여정대로 언니, 형부들과 함께 뽀뽀하게 이곳 저곳을 다녔다. 먼저 충청도에 있는 부모님 묘지에 들렀다가 천리포 수목원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천리포 수목원은 6.25전쟁 때 한국에 왔다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고 민병갈 박사가 가꾸어 놓은 바닷가 옆의 아름다운 수목원이다. 크고 작은 다양한 꽃들,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로 둘러싸인, 한 사람이 가꾸고 남긴 자연 사랑을 여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곳이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들을 들여오기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불교 신자였던 민병갈 박사는 생전에 친분이 있었던 우리 형부에게 자기는 환상하면 개구리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더니 참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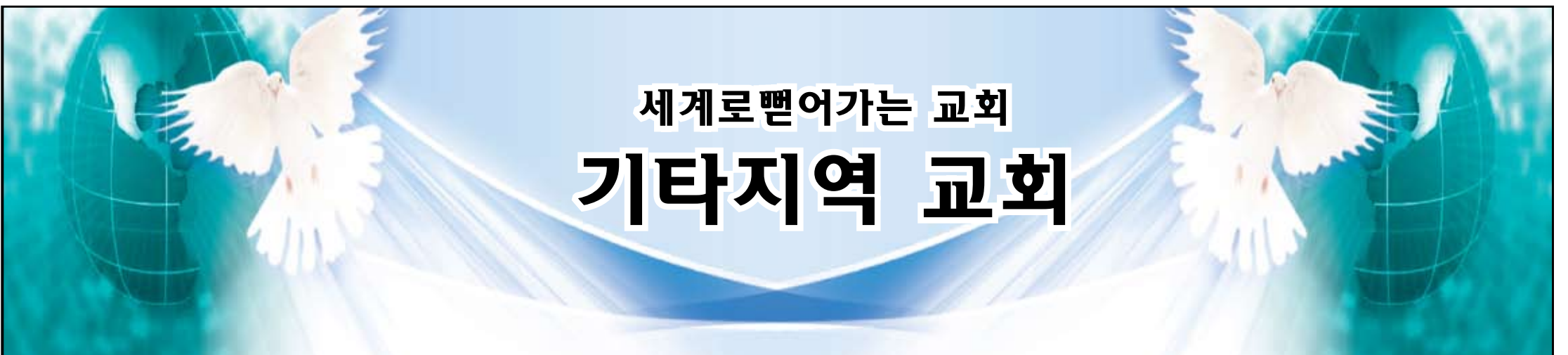
그 다음 코스로 간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증도를 둘러보다가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이라는 사인이 보여서 계획에는 없었지만 숙소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순교기념관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6.25동란 때 북한군에 의해 처형당한 바다가 보이는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 이미 늦은 저녁시간이어서 예배당과 전시공간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2013년에 세운 기념관 밖에 세워진 순교 기념비에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60년 채 못 다한 삶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다.

전도사님은 열일곱살 나이로 시집을 갖지만 소박을 맞아 생과부로 일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 나이 사십세에 경성성서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십팔년 동안 신안군 일대 도서 지역에 나룻배를 여러 번 같이타고 섬마다 다니며 전도했고 1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 “증도의 믿음의 어머니”로 불리는 그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었기에 한국 기독교의 신앙적인 인물들인 김준근, 이만신, 정태기 목사님은 문준경 전도사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이라고 한다. 김준근 목사님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자신의 생애에 최초, 최대의 영향을 준분이라고 표현했다. 문 전도사님의 순교기념비에는 공산당들이 전도사님을 학살할 때 “이 반동 간나 문준경은 새끼 많이 깎 씨앗이다”라고 한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분의 장례식 때는 김 구 선생의 장례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니 사람들의 삶 속에 그 분이 끼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짧은 삶,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저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떠난다. 자연인으로 살기를 위해 낯선 이국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꾸며 놓고 세상을 떠난 민병갈 원장의 삶은 보람은 있었겠지만 그분의 일생의 수고와 사랑의 정서를 풍부하게 가꾸어줄 수는 있어도 한 영혼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반면에 문준경 전도사님은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공산당들이 말한 대로 수많은 복음의 자녀를 낳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셨다. 이제 그분의 전도의 열매로 증도는 복음화율이 90%가 넘어 천사의 섬으로 불리고 있다.

다음은 전도사님의 순교시비에 적혀 있는 글 일부이다. “저들이 기쁘면 당신은 미소로 웃음이 되고, 저들이 울면 당신은 눈물이 되어 흐르고, 저들이 활벗으면 당신은 한 벌 웃이 되어 입히고, 저들이 밭 벗으면 당신은 한결레 신이 되어 신기고, 저들이 어두우면 당신은 빛이 되어 눈뜨게 하고, 저들이 배고프면 당신은 밥이 되는 바보 목자. 저들이 병들면 당신은 몸으로 약이 되신 성녀여.” 오즈음처럼 기독교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시대에 다시 한 번 웃기를 여미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lpyun@apu.edu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다문화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위, 우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학생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위, 우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침례: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영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영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535-1842(화), (254)501-4933(3)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침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올바른 성경적 호도법

혹자는 '한국서 호도는 이제 옛말'이라고 합니다. 옛 사람들은 한국을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고 칭송했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효(孝)와 효의 길(孝道)을 회복하여 늙은 부모(노인)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 받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서도,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라"(엢6:1-3)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잘 섬기고 모시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호도법일까요? (1)육신을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우리는 철따라, 유행따라 좋은 옷은 다 해 입고, 맛있는 각국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으며(주제육립, 산해진미), 친환경 소재로 태양방전의 화려한 집에서 살면서, 똥오줌 싫다 앉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주시며, 땀 흘려 수고하며 키워주

었건만, 뉘새난다고, 서로 자기 집에 모시지도 않으려고 하고, 노인들이 잡드시는 음식을 잘 대접하지도 않고, 일년이 다가도록 노인들이 좋아하는 편안 옷 한벌도 사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부모에게 베이비시터를 시키는 것은 부모를 빨리 늙고, 빨리 돌아가게 하는 큰 불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화장품 하나, 옷 한벌, 식사 한끼라도 잘 대접해야 합니다. (2)마음(혼)을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순종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잘 받는 것과 용돈을 여유있게 자주 드리는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좋은 호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3)영혼이 구원 받고, 천국 가시도록 해야 한다. 부모의 영혼구원이 가장 큰 호도입니다. 아무리 육신을 편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하게

기쁘게 해드려도, 그것은 고작 100년 미만, 육신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뿐입니다. 부모님이 타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로서,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시니까, 육신을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다고, 전도를 하지 않아 영원행벌의 지옥에 가게 한다면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천국가면 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편하게,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못해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8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은 부모가 안 믿으면 한 달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믿게 될 것이라고 했

습니다. 지옥갈 부모를 구원하여 천국에 가시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슨 노력인들 아까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이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해드려도 100년 미만에 끝나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천년만 년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만일에 믿는 자녀를 둔 부모가 이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그 자식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장소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싫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잡아끌어서라도 교회로 데려가야지, 내가 싫단다고 그대로 두었느냐, 못된 자식아!!"라고 할 것입니다. 최고의 불효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지옥행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호도, 가장 큰 최고의 호도이며 최고의 호도자입니다.

남가주 한인신학대 2019년도 학위 수여식 일제히 거행

KAPC개혁장로회신학교, 미주장신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미성대학교 등 남가주지역 한인신학교 2019년도 학위수여식이 일제히 거행됐다.

"인격과 지식 쌓아 사명 수행하라"

KAPC 개혁장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총회 직영 개혁장로회 대학및신학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의 제 38회 학위수여식이 6월 1일 오전 11시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에서 열렸다. 민중기 박사의 사회로 시작해 김성일 교수의 기도와 박희성 박사의 성경봉독이 있었고 KAPC 총회장 양수철 박사가 "주의 종이 가져야 할 자세"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수철 박사는 "주의 종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수행을 위해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하고 어떤 어려운 시험과 난관이 있어도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진 학감의 학사보고가 있었고 총장 이정현 박사

의 5명의 졸업생들에게 학위수여가 있었다. 이어서 이정현 총장의 훈시가 있었다. 이 총장은 "세상의 전문직은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도 어렵고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목회자도 일종의 전문직으로 소명과 함께 신학적 기초를 쌓아야 한다"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믿음의 지식, 인격과 사역의 역량을 넓히고 고결한 목회자의 인격을 쌓고 올바른 설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병권 교수의 졸업생을 위한 기도도 있었고 최갑종 박사의 축사와 박대근 박사의 격려사 후에 정인재 박사의 축도로 학위수여식을 마쳤다. <박준호 기자>

류종길 총장 퇴임식...총 27명 학위수여

미성대학교

미성대학교 제 17회 학위수여식 및 류종길 총장 퇴임식이 25일 오전 10시 30분 시온성결교회(최경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사장 조종근 목사 인도로 시작된 총장 퇴임식은 김광렬 목사(전 미성대 이사장)가 류종길 총장의 공적을 소개했으며 박성삼 목사(전 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축사했으며 허경삼 목사(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가 격려사를 했다. 그리고 이사장이 명예총장을 추대했다. 이어 신임총장 이상훈 박사가 인사했다. 총장 인사말에 이어 김용배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류종길 박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류종길 박사가 퇴임사를 했으며 이기홍 목사(사우스배니언교회 원로)가 축도했다. 김수정 박사(교학부총장) 인도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학

사보고, 학위수여가 있었는데 4명이 신학학사(BA), 6명이 목회학석사(M.Div), 5명이 상담학석사(MAC), 3명이 경영학석사(MBA), 4명이 목회학박사(D. Min), 5명이 상담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어 총회장상, 이사장상, 총장상, 동문회장상, 공로상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종길 총장의 훈화와 파송기도 후 송정명 목사(전 월드미션대 총장)가 축사했으며 이정근 목사(미성대 명예총장)가 격려사를 했으며 이희진 학우(졸업생 대표)가 답사했다. 이어 졸업생들이 특송했다. 김영철 목사(대외협력부총장)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기동 목사(이사)가 기도했으며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새로 시작할 때 구해야 할 것'(왕하2:9-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미성대학교 학위수여식 및 류종길 총장 퇴임식에서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오정근 음악박사 등 총 73명 학위수여

월드미션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학위수여식이 6월 1일 오후 1시 동양선교회(김지훈 목사)에서 열렸다. 임성진 총장은 격려사에서 "월드미션대는 세상을 위해 세워진 학교다.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 월드미션 졸업생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선목 부총장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김현경 교수가 기도했으며 학사보고, 학위수여로 이어졌다. 이날 임성진 총장, 신선목 부총장, 윤성환 이사장, 김지훈 동양선교회 담임목사가 단상에

등단한 가운데 열린 학위수여는 △음악박사 오정근 △목회학박사 김학철 등 5명 △음악석사 장슬기 등 8명 △목회학석사 강규정 등 7명 △신학석사 강석 등 5명 △크리스천상담학사 라라경 등 19명 △성서학박사 최은 등 9명 △음악학박사 김미옥 등 6명 △상담학박사 김명숙 등 6명 △상담학박사 남미선, 그리고 히스패닉 프로그램인 △성서학박사 6명이 학위를 수여 받았다. 총 73명. 이어 허지에 김문영 학우가 특송 불렀으며 임성진 총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박사님 학우가 졸업생 답사를 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김진호 학우가 헌신의 기도를 인도한 후 넷즈 고매즈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KAPC 개혁장로회 대학 및 신학 대학원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김인식 목사 Ph.D 학위수여, 32명 졸업

미주장신대학교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제 39회 학위수여식이 6월 1일 오전 10시 홀러턴장로교회(노진걸 목사)에서 가졌다. 이상명 총장은 "오늘 졸업한 학위수여자들은 이 세상의 씨앗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뿌린 씨앗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씨앗을 주셨지만 누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 졸업하는 자들에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받은 능력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했다. 구경도 교무처장 사회로 시

작된 학위수여식은 학위증서 수여, 시상, 그리고 이상명 총장이 격려사, 졸업생 대표 권유신 학우와 재학생 대표 박인기 학우의 기념품 증정이 있었다. 학위수여식 전에 열린 감사예배는 학생처장 김무빈 목사 인도로 시작, 용장영 목사(KPCA 서중노회장)가 기도했으며 본교 이사회 서기 안성복 목사가 성경봉독, 미주장신 콘서트와이어(지휘 조혜정 교수) 특송, 이기성 목사(KPCA 총회장)가 '종으로 사는 기쁨'(창 24: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유영기 목사(본교 이사장)가 축도했다. 이날 졸업식은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가 철학박사(Ph.D) 학위를 수여받으며 조수연 사모 등 4명이 상담학석사, 고경희 학우 등 27명이 목회학석사, 그리고 김요셉 학우가 신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준호 기자>

상급받는 주의 종으로...총 36명 졸업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학위수여식이 6월 3일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김현완 교무학장 사회로 열린 학위수여식은 백성렬 CFO가 기도했으며 제임스조 교수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한기홍 이사장이 '상급 받는 주의 종이 되십시오'(계 22: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4명의 선교학박사, 13명의 목회학석사, 4명의 기독교교육학석사, 1명의 선교학석사, 14명의 학사가 배출됐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논문우수상: 김충철(선교학박사과정) △총장상: 정희경(학부) △총회장상: 이춘경(석사) △이사장상: 이복조(목회학석사)가 수상했다. 권면에 나선 최규남 총장은 "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신다"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어린양을 먹이라고 목회명령 내리신 것처럼 오늘 졸업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목회자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오늘 학위를 수여 받은 자들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목회자, 둘째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전 세계 누리며 제자훈련을 하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총장 권면에 이어 신승훈 총회장이 축사를, 함원구 동문회장이 격려사를 전달하고 격려사를 했으며 이민선 학우가 졸업생대표로 답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김병학 교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학위수여자와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 63차 IEA 목사안수식...10명

International Evangelical Association(IEA, 국제복음주의협회) 목사후보자 교육과 제 63차 목사안수식이 5월 20-23일 IEA 본부(세인트루이스)에서 실시됐다. 이번 목사 안수자 10명은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를 비롯해 여러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선교사역과 교회에서 전임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 목사안수를 받은 것이다. IEA에서는 교파를 초월해 전 문분야에서 사역하는 남녀들을 위해 목사안수 길을 열어놓고 있다. IEA는 세계지도자 양성을 통한 세계선교를 위해 지난 1983

년도에 창설(설립자 Dr. James Song) 됐고 1986년에는 미드웨스트대학교, 2001년 GGU를 설립해 세계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IEA 산하에 세계 크리스천스쿨네트워크(WCSN), 글로벌리더십연구원(GLI), 국제교육협력기구(IEC) 등 많은 기관이 있어 세계 전략지에 인재 양성 기관을 세워나가고 있다. 뜻을 같이하는 교회, 기관, 학교, 개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목사안수에 관심 있으면 홈페이지(www.ieawm.org)를 방문하거나 전화(6360639-9221, 070-8690-2662) 또는 이메일(info@ieawm.org)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IEA>

동부교계 게시판



씨존(C-Zone) 스마트폰 강좌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 씨존(C-Zone)은 스마트폰 강좌(87기)를 6월 8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100분 강의한다. 강의 내용은 유튜브 입문, 촬영, 업로드 등을 강의한다. 삼성 갤럭시폰 또는 LG폰 등 안드로이드 폰 위주로 강의한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20은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강의 장소는 163-07 Depot Rd. #B-1 Flushing, NY 11358이다.

▲문의: (718)414-4848

퀸즈한인교회 제1회 뉴욕신학세미나

퀸즈한인교회(김바나바 목사) 설립 50주년 기념 제 1회 뉴욕신학세미나가 6월 24일(월)과 25일(화) 열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채경락 고신대 교수, 김대혁 총신대 교수, 배성진 목사(사랑의교회 훈련담당) 그리고 김바나바 담임목사가 강사로 선다. 등록비는 일인당 20달러(신학생 10달러). 또한 7월 5-7일 일간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인 탁지일 교수 초청 이단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718)672-1150

“하나님 주권과 영광 높이는 사역자 되라”

동부개혁장신 제 30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제 30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3일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려 총 17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김성국 학장은 졸업생들에게 “개혁주의 목회자로 교회와 세상에 나간다”며 “개혁주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높이는 자다.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는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복음의 전체성을 강조한다”고 말하고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개혁주의 목회자가 되라”고 훈시했다.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은 부이사장 허경화 장로 사회로 기도 홍승식 목사(뉴욕노회장), 성경봉독 홍승룡 장로(이사), 찬양 글로리아시어즈, 말씀선포 양수철 목사(KAPC총회장), 학사보고 허윤준 박사(학감), 학위수여 시상 훈시 김성국 박사, 졸업생을 위한 기도 이종태 목사(총동문회장), 격려사 정관일 박사(캐나다분교장), 축사 백운영 박사(이사), 축가 강혜영, 감사 박휘영(졸업생), 기념품 증정, 광고 이종원 목사(총무처장), 축도 강기봉 목사(학생처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 30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양수철 목사(LA 에버그린선교교회)는 “주의 종이 가져야 하는 자세”(행20:2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사명감당을 위한 자세의 3가지로 ‘일’로 시작하는 단어로 풀어나갔다.

첫째, 일기관지-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 초지일관, 둘째, 일관단심-하늘에서 부르실 때까지 변치 말라. 셋째, 일사각오-죽을 각오로 임전무퇴하라며 “이 ‘3일’운동을 안 하려면 목사안수 받지 말라, 목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헌신된 종이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박휘영 졸업생은 “말씀에 바로 서라, 경건을 연습하라, 헌신의 일꾼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 영적 재무장하며 승리했다”며 “바른 신학, 바른 신앙으로 땅 끝까지 복음전파 사명을 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 30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Better Together Prayer Movement 5월 기도회에서 김성국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연합해서 기도할 때 부흥 일어난다”

BTPM 5월 기도회 설교 김성국 목사

뉴저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합기도운동 Better Together Prayer Movement(대표 양춘길 목사, 이하 BTPM)가 지난 30일 저녁 프라미스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이 기도회의 5월 설교자는 김성국 목사(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담임)가 맡았다.

서정학 목사 사회로 박종윤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김종윤 목사가 기도한 후 김성국 목사가 “땅에서 하늘에서”(역대 하6:38-4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연합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며 “연합해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세계선교로 나타난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말씀이 살아난다”며 연합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에 대해 “기도의 마음과 자세, 내용이 중요하다”며 “온 마음을 다해 무릎 꿇는 겸비한 자세와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내용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당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졸업생과 시상자는 다음과 같다.

△목회학석사(M. Div): 김미권, 김인숙, 김정민(공로상), 박병준(최우수상), 박휘영(우수상), 이승필, 정우승, 정재원, 한우연, 허준 △기독교교육학석사: 허장길(이사장상) △여교역학(Diploma): 김정미(신학사(B.Th)): 김성애, 김연수(공로상), 박매자, 여선희(학장상), 최화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1987년 장영춘 박사를 교장으로 출발했으며, 1992년 뉴욕총회신학교와 병합하고 2019년 현재까지 총 49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합기도운동 Better Together Prayer Movement(대표 양춘길 목사, 이하 BTPM)가 지난 30일 저녁 프라미스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이 기도회의 5월 설교자는 김성국 목사(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담임)가 맡았다.

서정학 목사 사회로 박종윤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김종윤 목사가 기도한 후 김성국 목사가 “땅에서 하늘에서”(역대 하6:38-4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연합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며 “연합해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세계선교로 나타난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말씀이 살아난다”며 연합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스도에 뿌리내리고 좋은 열매 맺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이종명 목사) 5월 정기예배가 지난 29일 리빙스톤교회(유상열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임원들은 아동후원 사역과 선교사들을 위한 합심기도를 드리고 지난 한달 간의 사역을 보고했다.

1부 예배는 육민호 목사(홍보국장) 인도로 기도 임병남 목사(기획국장), 설교 유상열 목사(상임고문), 합심기도 박이스라엘 목사(사무총장), 축도 최창섭 목사(자문위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는 “쓴 뿌리”(히12: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의 자아라는 쓴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쓴맛을 내기 때문인데 가장 큰 쓴 뿌리는 탐욕”이라고 말하고 “둘째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라며,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두가 되자”고 전했다.

2부 회무는 회장 이종명 목사의 개회기도 후 박이스라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은혜로 기뻐하는 모습이 되자”고 역설했다.

설교 후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시어즈가 “엘리아의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합심기도로 이어졌다.

이창성 목사가 △각 개인의 회개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정학 목사가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상민 목사가 △미국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이민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각각 기도 인도했다.

모든 순서는 정창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BTPM 대표 양춘길 목사는 2020년 청교도 400주년을 맞아 뉴저지와 뉴욕, 보스턴 지역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연합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뉴욕 지역의 동참을 당부했다.

BTPM은 2018년 11월말 뉴저지사모회, 리브뉴저지, 뉴저지실버미션, 허그미션, GUM선교회 등 6개 단체 연합으로 시작된 기도운동이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 되는 ‘연합의 영광’ 을 누리자!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

오는 7월 12일부터 열리는 뉴욕교협의 최대 연례행사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를 앞두고 2차 준비기도회가 6월 3일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유용진 목사 인도로 기도 김필식 목사,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 설교 김학진 목사(뉴욕장로교회), 합심동성기도 박진하 목사(2019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 박이스라엘 목사(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이재봉 목사(뉴욕교계를 위해), 광고 이창중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학진 목사는 “연합의 영광”(시133: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첫째, 연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며 “하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둘째로 영권이 회복되는 영광”이라며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셋째로 영생(구원)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시대에도 복음의 보혈의 피가 역사한다. 연합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회장 정순원 목사 사회로 마바울 목사 개회기도 후 시작됐다.

정순원 목사는 인사 및 경과보고에서 교협이 진행했던 두 번의 집회인 신유집회와 성령화대회에 대해 보고하면서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직접 회장에게 문의해 달라”며 뒷이야기가 오간 것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또 정순원 회장은 9월초 예정된 차세대 집회에 대해 감사원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10월 할렐루아청소년대회와 연계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태튼아일랜드(뉴욕성결교회)로 예정된 3차 준비기도회 장소가 너무 멀다는 유상열 목사의 의견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장소를 뉴욕그레인트교회(양민석 목사, 부회장)로 변경했다. 날짜는 6월 20일(목).

김재권 할렐루아대회 준비위원장은 “순서지 작성에 있어서 40개 교단을 안내하는 등 연합행동이 쉽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연합해서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상열 목사는 “교협은 교회들의 연합체이며 교단별로 소속돼 있지 않다”며 “각 교회들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무는 이재택 목사의 폐회 및 오찬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나눔의집 메모리얼데이 바비큐 파티

2019년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미주한인노숙인의 쉼터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매주 1회씩 23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는 의명의 자원봉사자가 바비큐 파티를 직접 준비해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이웃사랑 나눔실천으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북미원주민선교회 2019 첫 선교교육훈련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신임회장 김재열 목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북미원주민선교회 2019년 선교교육 시작

뉴욕교협 산하 북미원주민선교회가 6월 2일 오후 6시 뉴욕 선한목자교회에서 2019년 북미원주민 선교교육을 시작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16:9)”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원주민 연합선교회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에서 진행된다.

올 북미원주민선교회는 여러 가지 변화를 맞았다. 먼저 회장으로 김재열 목사가 추대됐다.

직전 회장 이재봉 목사는 “원주민선교 초창기에 활발하게 선교를 하다 약간 소강기가 있었다. 그래서 선교 지역의 초점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선교회 이사 목사들이 회복을 놓고 2년여 기도하는 가운데 김재열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소개했다.

김재열 목사(센트럴교회)는 뉴욕실버미션을 설립하고 지난 15년간 성공적인 연합 선교를 하고 있으며, 북미원주민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김재열 목사는 1장 14절을 본문으로 박준영 목사의 영어 통역으로 열정적인 설교를 했다.

김 목사는 최초의 선교사인 예수님의 선교를 분반하는 3가지 선교의 자세에 대해 “첫째, 선교의 대상인 현지인들과 같이 된다, 둘째 현지인들과 같이 산다, 셋째 구제보다 복음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열 목사는 브라질 깊은 인디오 마을에 들어간 한국 선교사의 일화를 소개하며 “선교

지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울도 자신의 학벌과 권세와 신분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자기 모양을 고집하지 않으며 어디라도 들어가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선교학’을 설명했다.

또 나환자들과 같이 산 안양원 목사 등의 일화를 소개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선교를 강조했다.

설교에 앞서 대니얼김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 중교등부)를 리더로 경배와찬양이 진행됐다. 대니얼김 목사는 “내가 찬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며 차세대들에게 선교의 헌신에 앞서 신앙의 헌신에 도전했다.

북미원주민선교회는 이번엔 로고를 만들고 포스터도 준비했다. 배성현 선교사에 따르면 북미원주민선교 매뉴얼도 준비할 예정이다.

선교훈련은 6월 2일을 시작으로 7월 21일까지 매주 일 오후 6시 뉴욕선한목자교회(박준영 목사)에서 8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접수마감일은 7월 14일이다. 참가비는 일인당 500달러이며 둘째부터는 450달러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한국교회 위해 '하나님의 역사' 기도 당부

한교연회장 권태진 목사 초청 교계지도자 간담회

한교연 회장 권태진 목사 초청 남가주지역 교계지도자 간담회가 5월 30일 오전 11시 JJ 그랜드호텔에서 가졌다.

최근 현지 롱비치에서 열린 미주합신 동문회 주강사로 참석차 남가주를 방문한 권태진 목사는 "병자였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월남전에 파병됐을 때 전쟁의 비참함을 목격했다. 그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 교계는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그리고 교회협의회 등 4개



한교연 회장 권태진 목사 초청 남가주지역 교계지도자간담회에서 권태진 한교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단체가 대표적인 교계연합단체로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교계연합단체로 활동해야 하는 단체들이 하나가 되는 건 요

원 해보인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한교연 대표회장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분열하고 있는 한국 교계의 연합을 이뤄낼까 생각했는데 답은 기도밖에 없다"며 "크리스천들이 용기를 못 내고 입을 닫고 있는 모습 속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며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가 무너졌다. 30여년 전 도봉산, 삼각산에서의 뜨거웠던 기도가 끊어지니 서로 싸우고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면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국은 안보, 정치 등 모든 것이 위기다. 그렇지만 정치권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각 지역마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LA에서도 성령을 의지해 기도의 움직임이 일어나서 회개와 부흥이 교회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갖은 경건회는 남가주교협 총무 안신기 목사 사회로 시작, OC목사회장 김근수 목사 기도, 나경화 선교사 특송, 남가주교협회장 한기형 목사 설교와 남가주목사회장 김관진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LA여성선교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단원들

발달장애우를 위한 자선기금마련

LA여성선교합창단 제 7회 정기연주회

LA여성선교합창단(단장 최정직, 지휘 최왕성, 반주 박명선) 제 7회 정기연주회가 2일 오후 6시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오프닝 곡으로 '신의 영광', '참 아름다워라', '예수 이름으로'를 선사한 단원들은 인생과 신앙의 연륜 속에서 묻어나는 깊은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연주회는 성가곡 외에 '영산에 살리라', '선구자', '꽃구름 속에' 등 가곡도 들려 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특별출연한 오렌지미션콰이어(지휘 장진영/반주 천금선, 최지혜)는 중후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거기 너 있었는가', '알파와 오메가'를 연주했으며 LA여성선교합창단과 오렌지미션콰이어 단원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마지막 곡으로 부른 뒤 고문 최대순 목사의 축도로 막을 내렸다.

특히 올 연주회는 발달장애우를 위한 자선기금마련으

로 행사 후 남가주밀알선교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단장 최정직 사모는 "LA여성선교합창단은 18년 전에 작은 묘목을 심고 가꾸고 정성껏 노력으로 가꿨더니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우리를 필요로 해 초청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찬양을 드리며 선교를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왕성 지휘자는 본 합창단 외에도 Haa Rham Chorale, 벨리청소년합창단, 벨리새생명 감리교회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명선 반주자는 꿈이 있는자유, CCM 성가곡 작곡, 편곡 및 앨범제작에 힘쓰고 있다.

본 합창단 연습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까지 760 S. Westmoreland에서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213)700-7881, (818)360-9292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목성연 주최 제8차 코칭세미나 입문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경청, 질문, 메시지 3가지 키워드...

목성연 제 8차 코칭세미나 입문반 열어

미주목회자성경연구원(목성연 GMBI America, 대표 문희원 목사)는 제 8차 코칭세미나 입문반을 6월 3일부터 5일까지 남가주새시대교회(정중환 목사)에서 김원종 목사(미주목회자성경연구원 전임강사)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3일 세미나에서 김원종 목사는 "크리스천 코칭의 목적은 목회 및 사역현장에서 코칭 활용, 교육 및 비즈니스 현장에서 코칭 활용, 한국교회협회 코치인증 자격 준비, 국제교회협회 코치인증 자격 준비, 국제교회협회 코치인증 자격 준비에 있다"며 "목성연에서는 올해 미국의 4개 지역에서 5명의 코치를 세우게 되길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코칭은 경청, 질문, 메시지의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돼있다"며 "코칭을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80%를 들어야 하며 20%를 말해야 한다. 하지만 20%의 말하는 영역에

서도 질문이 주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크리스천 코칭은 코칭을 받는 자의 삶의 목적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들"이라며 "크리스천 코칭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클라이언트가 도달해야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 목사는 "코칭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코치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기다려주는 것"이라며 "클라이언트 혹은 코치의 에너지가 다운될 때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할 때는 효과적인 코칭이 이뤄질 수 없기에 코칭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참석자들과 함께 코칭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밝은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남가주밀알선교회 찬양팀

남가주든든한교회 주관 '진정한 이웃' 실천

남가주밀알선교단 등 연하 5월 '밝은 예배'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과 종려교회(전성도 전도사), 나눔선교회(한영호 목사, 정근택 전도사)가 매월 연합으로 드리는 '밝은 예배'가 지난 28일 저녁 7시 30분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장우들과 그들을 섬기는 스텝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드러졌다.

이날 예배는 남가주든든한교회(김현인 목사) 주관으로 남가주밀알 LA찬양팀의 찬양과 기도 손뼉수 장로, 특송 최금순 권사, 말씀 김현인 목사로 진행됐다.

김현인 목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눅10:29-37)의 제목으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과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강도만난 자를 돌본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이를 돌볼 수 있었다"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맡겨 활용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사람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예배사작 전 남가주든든한교회 권사들이 직접 준비한 전통한국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밀알선교단 LA 화요 모임은 매주 화요일 한길교회(박찬섭 목사)에서, OC 모임은 주님의빛교회(주혁로 목사)에서 있으며 밝은 예배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드러진다. 밝은 예배를 섬겨줄 교회와 성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562)229-0001. (이성자 기자)



OC한인회관 건립기념 축하음악회에서 한국환상곡의 애국가를 전문연주자들과 관객들이 함께부르고 있다

OC한인회관 건립기념 축하음악회

오렌지카운티한인회 주최, 라크마필하모닉 등 공연

오렌지카운티한인회(회장 김중대 장로) 주최 OC한인회관 건립기념 축하음악회가 6월 1일 오후 7시 세리토스 파포밍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축하음악회는 라크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라크마 챔버콰이어(지휘 윤임상 교수)가 출연해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축배의 노래',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등을 불렀으며 아리랑합창단과 오렌지미션콰이어와 함께 가곡 '보리밭'과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다.

또한 테너 오위영, 티모시 곤잘레스, 호세 매뉴엘 추가 무대에 올라 솔로와 앙상블 무대를 꾸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철원어린이합창단(지휘 장혜원)이 특별출연해 '까투리 타령' 등 민요를 불렀다. 음악회는 전 출연자가 연합으로 '한국환상곡'을 함께 불렀으며 노사연의 '만남'을 관객들과 함께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VISION YOUTH CLASSICAL CONCERT

LA비전센터 시각 장애인과 농아인 선교를 지원하는 자선콘서트인 VISION YOUTH CLASSICAL CONCERT(VICC)가 15일(토) 오후 7시 한빛장로교회(김상현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LA Bliss 유스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입장료는 10달러.

▲문의: (714)476-6591, 476-6577

극단 이즈키엘 뮤지컬 '마루마을' 공연

극단 이즈키엘(대표 전수경) 뮤지컬 '마루마을'이 14일(금)부터 할리우드에 위치한 LA 반스달 극장(4800 Hollywood Blvd.)에서 '마루마을 2019'라는 제목으로 그 막을 연다. 일정은 14일(금) 오후 7시30분, 15일(토) 오후 3시30분, 7시30분, 21일(금) 오후 7시30분, 28일(금) 오후 7시30분, 29일(토) 오후 3시30분, 7시30분

▲교회단체 문의: (213)200-9544

LA영플레이어스 제4회 정기연주회

LA영플레이어스(지휘 조지현) 제4회 정기연주회가 8일(토)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회는 소프라노 신선미, 한성연이 특별출연한다.

▲문의: (213)268-2388

미주여성코랄 창단 28주년 정기연주회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권사)의 창단 28주년 기념 및 시리아 난민돕기 음악회가 8일(토) 오후 6시 바이올라 대학교 Crowell Lansing Hall에서 열린다.

▲문의: (714)336-9269

오렌지미션콰이어 정기연주회

오렌지미션콰이어(지휘 장진영) 정기연주회가 9일(주일) 오후 6시30분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562)924-4466



그랜드페스티벌 콰이어 창단연주회가 바이올라대학교 크로웰 홀에서 성황리에 열

3파트로 공연...아마존 선교도 후원

그랜드페스티벌 콰이어 창단연주회

그랜드페스티벌 콰이어(단장 이인호, 지휘 강민석) 창단 연주회가 6월 2일 오후 6시 바이올라대학교(총장 베리코리 박사) 크로웰 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아마존 선교를 하고 있는 김창연, 김화선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열린 연주회에서 이인호 단장은 "창단연주회를 가질 수 있게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며 "그랜드페스티벌 콰이어라는 이름처럼 저희들이 준비한 축제의 찬양과 노래들이 연주회에 함께하신 분들께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노진걸 목사(홀러턴장로교회 담임)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그 선물, △옛 생각, 그리고 향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라는 3파트로 나누어서 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연주회는 소프라노 이영주와 CTS iDream 콰이어(지휘 신하영)가 특별출연 했다.

또 이인호 단장이 김창연 선교사와 김화선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성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철원소년소녀합창단 미국서부순회연주회가 지퍼홀에서 열렸다

철원소년소녀합창단 미국서부순회연주회

철원소년소녀합창단(지휘 장혜원) 미국서부 순회연주회가 5월 26일 오후 6시 30분 지퍼홀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고향의 봄, 새봄맞이 등 동요, 내 영혼에 햇빛비치면, 구주예수 의지함이 등 찬송가, 까투리타령, 한강수

타령 등 민요를 불렀다.

또한 LA남성선교합창단(지휘 원영진)과 소프라노 신선미 바이올리스트 김유은이 특별출연해 이날 연주회를 아름답게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총회장 류정호·부총회장 한기채 목사

기성 제113년차 총회... "총회본부 재건축 1년간 연구"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는 29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에서 제113년차 총회 임원선거를 갖고 류정호(대전 백운성결교회)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목사부총회장에는 한기채(중앙성결교회) 목사가 당선됐고 장로부총회장에는 정진고(서울 영광성결교회) 장로가 단독 출마해 선출됐다.

류 총회장은 총회장 이·취임 예배에서 "부족한 저를 제113년차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성결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1년간 총회장의 직임을 맡았지만 10년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교단의 미래를 위해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성결성·정치 회복 운동' '섬김의 리더십으로 일하는 총회' '중형교회 성장 로드맵 제공' '국내외 및 북한 선교 지원' 4가지를 제시했다.

최근 교단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기성 총회 본부 재건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재건축은 자칫 잘못되면 교단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대 사안이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꼭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직접 이 일을 하려 하지 않고 1년간 연구해 제114년차 총회에서 대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지형은(성락성결교회) 목사와의 접전 끝에 목사부총회장에 선출됐다. 그는 대의원 765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461표를 얻어 298표를 받은 지형은 목사를 앞질렀다. 기성 총회의 선거관리규정상 3분의 2 득표에 실패해 재투표가 진행돼야 하나 지 목사가 사퇴를 선언해 한 목사의 당선이 확정됐다. 지 목사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뒤 "한기채 목사님의 부총회장 당선을 축하한다"는 플

래카드를 걸어 경쟁자였던 한 목사의 건승을 기원했다.

단독 후보가 출마한 서기와 부서기, 회계에는 이봉조(김포 성결교회) 이승갑(충남 용리성결교회) 목사와 임호창(인천 간석제일성결교회) 장로가 각각 당선됐다. 경선으로 치러진 부회계 선거에선 노수현(광명중앙성결교회) 장로가 선출됐다.

이날 오전 회무에서는 선교국을 국내선교국과 해외선교국으로 분리해 설치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총회비 산출 근거 개정이나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결성 등은 총회 마지막 날 오전 회무에서 다뤄진 다.

총회는 2018년 12월 현재 전국 성결교회와 세례교인 수를 공개했다. 전국 성결교회는 2865개, 세례교인은 29만6070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에 비해 교회는 19개 증가했고 세례교인은 4396명 줄어들었다. 7년 연속 세례교인 수가 감소해 그간 유지해 왔던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총회 대의원 수도 700명대로 줄었다.

"영육 파괴하는 동성애 합법화 물결 막아야"

퀴어행사 반대 국민대회 5만여명 참여

동성애자들의 서울퀴어문화행사와 이를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1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동시에 열렸다. 퀴어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은 경찰의 방어벽에 가려져 진행됐다. 우려했던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동성애퀴어행사반대국민대회(국민대회·대회장 이주훈 목사) 측 참가자들은 흰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가 열린 서울시의회 건물 주변에서는 흰옷을 맞춰 입은 아이와 부모들이 모여들었다. 부모의 손을 잡은 아이들은 주춤 속에서 나눠 준 호루라기와 부채를 불고 흔들며 행사에 참여했다.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은 이주훈 목사는 대회사에서 "한국을 향하는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이 점점 더 거세짐을 느낀다"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파괴

하는 행위를 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내 살배기 아들을 유모차에 태운 채 참석한 김완성(50) 박은정(49) 부부는 "동성애는 가정을 보호하지 못한다. 결국 다음세대의 문제로 이어져 가정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학생과 청소년인 아들도 두 있는데 주변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청소년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더라. 부모로서 이를 지나칠 수 없어 반대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퀴어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에선 청소년들이 점점 더 거세짐을 느낀다. 옛날 얼굴로 행사장 내 청소년

년 동성애 지원 부스를 둘러보던 강민지(가명·17)양은 "저도 동성애 성향이 있는 것 같아 퀴어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여고를 다니는데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몇 명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회 측은 이날 오후 3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펼쳤다. 이들은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도, 치유 불가능도 아닙니다"라고 써진 팻말과 깃발을 흔들며 행진했다. 국민대회 측은 5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개신교, 천주교 등 4대 종교인들은 1일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제5회 동성애치유회복 및 탈동성애인권개선 기원 4대 종교집회'를 열고 '탈동성애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했다.

'사랑을 온 세상에' ...사랑의교회 헌당예배

2013년 입당 후 6년만의 헌당감사예배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이 '한국교회 찬송가 회복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교회 공예배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데도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공인되고 은혜롭게 불린 정통 찬송가가 교회강단에서 많이 불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선교사는 최전방서 복음 전하는 귀한 종"

순복음세계선교대회 개막...64개국 699명 참가

제45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기성)는 2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다. 교회 내 순복음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은 64개국 699명에 달한다. 교회는 이날 개회예배를 통해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임을 재확인했다.

이영훈 위임목사는 "답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행 28:30~31)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복음 전파는 교회의 생명이자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며 "선교사는 복음 전파의 최전방에 나가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라고 선교사들을 격려했다. 이 목사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도 소개했다. 이 목사는 "리빙스턴 선교사는 사자의 습격을 받아 안쪽 팔이 불구가 되면서도 선교를 하나님의 특권으로 여겼다"며 "별세한 뒤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몸은 고향인 영국에 묻혔다. 우리도 그를 생각하면서 힘껏 복음을 전하자"고 독려했다.

조용기 원로목사는 선교사와 성도들을 격려했다. 그는 "(선교사들) 한 분씩 모두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목사는 "나 역시 앞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예배에선 인도에서 25년째 사역 중인 배드보라 선교사 이야기가 소개됐다. 배 선교사는 복음전도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제자훈련과 교회개혁, 현지인 사역자 자립 지원 등을 돕고 있다.

대회에 참석한 서상진(56) 대만 선교사는 "얼마 전 대만에서는 동성결혼이 아시아 최초로 합법화돼 착잡한 심경을 안고 왔다"면서 "그래도 교회가 반대서명운동으로 힘을 보태주겠다고 해서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다.

선교대회는 31일까지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과 서울 교회에서 치러지며 선교영역별 사례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교회 매도 가짜뉴스·오보, 감시 필요"

예정통합, 한국교회언론홍보위 정기포럼에 요청

교회에 비판적인 언론 환경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19 한국교회언론홍보위원회 정기포럼-비판적 저널리즘과 한국교회의 대응'을 열고 머리를 맞댔다.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교회에 대한 비판적 언론과 위기 관리"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언론은 환경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합하며 문화를 전수하는 역할이 있다"며 이에 언론의 교회 비판은 정당하다고 했다. 교회 내 비리와 부패 범죄, 세상과 유리된 교회의 폐쇄성과 성장제일주의, 대항화 세습 등은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화의 오류를 나타내거나 지나치게 흥미를 추구할 때, 안티 기독교적이고 불균형적인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오늘날 교회에 대한 왜곡 편파 편향 허위 과장 조작 등을 하는 가짜 뉴스가 범람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언론의 보도를 세상에 비친 교회의 거울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가짜뉴스와 오보 범죄적 사안 등에 대한 교회와 노회, 총회 등의 매뉴얼을 구축해 부당한 비판적 보도를 감시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남겼다. 교단을 대표하는 대변인제를 두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자회견과 기자 좌담회를 열어 세상 언론과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

이슈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총회 산하 부서의 구성과 운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바랐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단 소속 성직자나 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신속히 입장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해 공적 교단의 역할 강화도 촉구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적 공적 의제에 대해 교회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공표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안기성 전 문화체육관광부 총무관은 "천주교나 불교와 달리 한국교회는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나 교단을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에서도 한국교회의 입장을 듣고자 할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목사가 저지른 비행에 대해서도 중간에

서 책임지고 정리하고 대변해주는 장치나 기구가 없다보니 언론에 그대로 노출될 때가 많다"며 "기독교연합단체는 한국교회를 대표해 언론과 채널을 만들고 소통할 의무가 있다"고 권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연합단체들은 신앙적 신학적 입장 차이가 있어 단일 채널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에 필요한 것은 심도 있는 연구와 꾸준한 네트워킹 노력이다. 안 준무관은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활동 자체가 우리 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선물이기를 바란다"며 "감동은 경계를 넘어 조건 없이 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창배 통합 사무총장은 앞선 설교에서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라며 "어떤 시절 어떤 세월이 오든 예수님이 말씀한 구원의 설리로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명확한 메시지를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출산율 0.98 쇼크 위기극복'

한교총, 국민포럼·캠페인 진행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공동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은 오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산율 0.98 쇼크,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기조를 분석하고 결혼출산 육아 등에서 역할을 고민하는 교회와 기독교 대학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를 통해 삶의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회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교총은 이번 포럼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 실천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교회 주요 30개 회원교단과 생명존중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교회 위해 각종 통계 자료 내놓는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기자회견서 설립목적과 향후 활동계획 밝혀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대표 지용근)가 30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 목적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지철 목사) 후원이사회(회장 류영모 목사) 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신원하 교수)를 비롯한 목데연 주요 인사, 기독교계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용근 대표는 "목데연은 교회가 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온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중립 가치중립의 팩트탱크(Fact Tank)"라고 소개했다. 이어 "목회자에게 사회·교회와 관련된 객관적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세상과 교회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지 대표는 지난 1월 전국 목회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목회자 설문 시 통계자료 활용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목회자 10명 중 7명(68.8%)은 설문 시 소재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설교에 인용하는 것에 대해 84.4%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목데연은 목회자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엄격한 검수를 거쳐 선별된 통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

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주요 이슈에 대한 대표적 논리와 주장을 담은 칼럼·논설을 선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 대표는 "목데연 홈페이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메일링 서비스를 진행할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적인 찬송가 회복운동은 교계 방송 언론사에서 찬송가 방영 비율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각 교회에서도 공예배 준비 찬송과 성가대 선곡 등에서 찬송가 비율을 높이고 있다.

김희철 서울 명성교회 성가대 지휘자는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성가대와 찬양단을 초청해 찬송가 음악회를 열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한국교회 찬송가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침체된 한국교회에 찬송가로 새로운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15일 오후 4시에는 '찬송 힘(Hymn)페스티벌 시즌 3'가 경기도 광주 히스토리캐퍼스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에는 유나이티드싱어즈를 비롯해 문화교회글로리아 찬양대, CTS콘서트사이어, 코리아챔버시어즈, JW코랄, 크리스찬코랄, 유나이티드유스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정통 찬송가만 함장으로 부르거나 연주하게 된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덕영 이사장(서울 창신교회 장로)은 "한국교회에 CCM과 복음성이 등은 많이 소개되고 불려지는 반면 정통 찬송가를 부르는 움직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신성한 교회 강단에 드림 등 타래 발표, 특강, 성령대망회,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선교의 창 (124)



송종록 목사 (대천교회)

베트남 Vision Trip

내게 베트남은 어떤 나라였는가? 무서우면서도 애잔한 나라가 아닌가?

언뜻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 "람보(Rambo)2"가 생각났다. 내 머리 속에는 주인공인 실베스터 스틸톤이 정글 속에서 초인적으로 싸운 장면이 자리하고 있었다. 거기에 나온 베트남들은 독하고 공포스러운 대상이었다. 베트남 전쟁은 나의 중, 고교 시절에 일어났다. 그 때 난 파병된 국군장병들을 위해 위문편지를 썼었다. 당시 용맹스런 우리 군인들의 승전보를 들으며 얼마나 애국심을 고취했었던가?

1975년 사이공이 북 베트남에 함락된 후 4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언제부터인가 난 이 땅을 직접 밟아보고 싶었다. 전쟁후의 베트남은 어떻게 변했을까? 차일피일 방문 기회를 미루다 이번에 작심하고 나섰다. 마침 호치민 시에서 우리 단체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평양을 건너 어렵게 가는 마당에 베트남을 다양하게 보고 경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식일정 외에 개인 일정을 추가 하였다. 물론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서도 미리 리서치를 하였다.

아랍시고 내가 목을 방에 에어컨과 선풍기까지 켜놓았다. 땀으로 흠뻑 젖은 내게는 그것들이 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눅눅하고 더운 아열대 기후 속에서 잘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느꼈다.

2. 호치민 기념관

호치민은 베트남의 국부이다. 그의 시신이 중국의 모택동처럼 방부처리 되어 전시되고 있었다. 그는 죽기 전에 인민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고 재를 3등분하여 도자기 상자에 담아 북부, 중부, 남부에 뿌려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러나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마도 후대들은 그를 놓고 싶지 아니해서 일 것이다. 나는 불과 5m 거리에서 누워있는 그를 보았다. 왜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을 이토록 못 잊어할까?

그는 일편단심 외세로부터 베트남을 독립시키기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독신으로 살면서 생사를 넘나든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막힌 답을 열고 나아갔다. 또한 그는 베트남 인민들을 사랑했으며 검소

고 있었다. 돌아오는 배 갑판 위에서 사람들은 의자에 앉거나 간이침대에 누워 저녁노을을 보았다. 물새들이 떼 지어 돌아다니고 저녁노을이 붉게 들어가고 있었다. 서늘한 맛바람이 더위를 식혀주었다. 여기는 베트남 제1의 관광명소이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날려버린 신비로운 곳이었다. 이곳에 오기 전 선배 목사님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하룻배이를 다녀오라"고 했던 권민이 생각났다. 이제야 비로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

4. 다낭 일대에서의 여정

다낭은 베트남의 중부도시로서 최고의 휴양지였다. 바다와 강을 낀 천연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룸메이트인 A 선교사의 권유로 해변가에 갔다. 5시 정도 아직

미명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 바다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여기 사람들은 이른 아침과 오후 늦게 주로 일을 한다. 낮에는 태양빛이 따가워 11-1시까지는 오침을 한다는 것이다. 다 사는

법이 있다. 입향순속(入鄉循俗)이란 사자성어가 생각났다.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入鄉) 그 풍속을 따른다(循俗)는 이 성어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란 서양 격언과 의미가 같다.

다낭에서 남쪽으로 40분 정도 가면 호이안 시가 나온다. 그곳은 아직 개발되지 않는 베트남의 전통마을이다. 토속음식과 차 각종 수공예품들이 도로변에 진열되어 있었다. 작은 강가에는 새우잡이를 위한 작은 코코넛 배들이 즐지어 있었다. 이 배는 원래 새우잡이가 목적이었다. 허나 관광객이 몰려옴으로 이제는 "새우보다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

이었다. 그곳은 엄청난 폭탄을 투하해도 별로 효력이 없는 곳이었다.

메콩강(Mekong)은 하노이에서 역시 3시간 거리에 있었다. 이 강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며 10번째로 유수량이 많은 강이다. 길이는 약 4,350km이다. 중국 칭하이 성에서 발원하여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른다. 이 강의 끝인 베트남에서는 삼각지를 이루고 있다. 물색은 중국의 황하 강처럼 누렇게 그지없었다. 메콩강 주변에는 수삼가옥들이 있었다. 인류의 4대 문명이 강을 끼고 발원하지 않았는가? 이 강은 동남아 7천만의 젖줄인 것이다.

맺음 말

2주간의 짧지 않는 여정이 끝났다. 가는 곳마다 넘치는 물과 초목과 오토바이를 탄 청년들이 눈에 들어 왔다. 베트남이 어디로 갈 것인가? 외형적으로 사회주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개혁개방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조상제례를 중시하며 사당들이 즐지어 있었다. 젊은이들에게는 전쟁으로 인한 과거 역사에 별로 매이지 않는 것 같았다. 과거는 과거로 끝났고 여기는 것이다.

저들은 매우 진취적이다. 그것은 강한 승부기질이 속도감 있게 연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만일 아직도 이 나라가 우리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나뉘어 이념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국토와 민족이 하나 되어 비상하는 모습에 부러운 마음도 든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하나가 될까? 원컨대 이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경제나 군비확장이 아니다. 복음이다. 난 선교 베트남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았다. 비록 지금 1% 크리스천이지만 머지않아 10%로

베트남은 많은 물과 푸른 초목과 청년들이 넘쳐난다. 베트남인들은 목적을 향한 집념과 민첩함과 연대감이 강하다. 우리는 저들이 선교 동반자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1. 첫 인상과 느낌

5월 20일 오후 2시 비행기는 수도인 하노이 공항에 안착했다. 서울에서 출발한지 4시간 만이었다. 여기는 지난 2월 28일 2차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었다. 초행길이라 약간의 긴장감이 들었다. 공항 관리자는 얼굴한편 흘겨보고 아무 말 없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다. 짐을 찾은 후 처음 한 일은 환전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의 화폐는 단위가 높았다. 1\$=23,400 Dong이다. 300USD를 환전하니 7,020,000VND 되었다. 갑자기 백만장자(百萬長者, millionaire)가 된 기분이었다. 화폐 단위가 너무 커 감이 잡히지 않았다. 드디어 대합실을 나왔다. 막상 밖으로 나오니 대지의 여열이 확 밀어닥쳐다. 여기가 베트남인가? 난 마중 나온 하노이 지부장이 선생과 함께 택시를 타고 시내를 가로질러 갔다. 도로 주변의 신축되고 있는 건물들이 많았다. 신기하게도 차량사이로 많은 오토바이를 질주하고 있었다. 이 부장대에 도착했다. 안도감이 들었다. 아무리 먼지 곳이라도 지인인 없다면 얼마나 낯설게 느껴질 것인가? 이 사모는 손님

했다. 일식 3찬을 고집했으며 전용 외제 승용차 있었지만 잘 타지 아니했다. 그는 베트남 통장 발작으로 사망했다. 그 나이 79세가 되던 1969년 9월 2일이 었다. 비록 그는 갖지만 그의 애국정신과 삶의 방식은 여전히 베트남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 하롱베이의 신비함

하롱만은 베트남 북부, 팡닌 성 퉁깁만 북서부에 있는 만의 명칭이며, 크고 작은 3,000개의 기암괴석과 섬들이 존재한다. 1994년에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바다위에 작은 돌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 어떤 돌산에는 거대한 석류 동굴이 있었다. 돌산을 끼고 돌아가면 큰 호수 같은 바다가 있다. 이곳은 이마가 닿을 듯 듯한 동굴을 지나야 갈 수 있다. 사방이 돌산들로 막혀있어 파도도 없다. 그 바다호수는 아마도 야구장 10정도 되리라 생각한다. 물이 고여 있기에 파란 이끼들이 많았다.

여행 온 사람들은 저마다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

고도 그럴 것이 새우잡이 해바야 얼마나 수익이 있겠는가? 밤에는 작은 마을이 불야성을 이루며 온통 야시장으로 변했다. 그야말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Shopping)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5. 호치민 시의 여정

5월 27일 정오에 이곳에 왔다. 느낌이 북부나 중부보다 훨씬 후텁지근하다. 북부 하노이가 정치도시라면 중부 다낭은 휴양도시 그리고 남부 호치민은 상업도시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북부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느껴졌다. 구식과 신식 건물이 섞여 있었다. 젊은 청년들의 오토바이 부대는 상상을 초월했다. 어떻게 날마다 저 많은 매연을 마시며 살 수 있단 말인가?

호치민 시에서 약 3시간 버스 달리니 그 유명한 땅굴이 나왔다. 베트남은 근 20년간 프랑스,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저들 나름의 전술전략을 택했다. 그것은 땅굴을 도처에 파 숨고 기습작전을 벌인 것이었다. 밀림 속의 땅굴은 체구가 큰 서구인이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

부흥하지 않을 까 싶다. 그러면 선교동반자로서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히말라야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축복의 기도

6월 2일 밤 11시30분 호치민 국제공항을 이륙했다. 시야에 아름다운 불빛을 켜 호치민 시가 들어왔다. 이렇게 평화롭고 역동적인 곳이 불과 반세기 전에 전쟁으로 핏빛이었다는 것에 실감이 가지 않았다. 일시에 보름간의 피로가 몰려왔다. 조용히 눈을 감고 탄원을 하였다. "주님! 이 땅을 기름부어 주옵소서. 상처난 영혼들 만져주옵소서. 거리를 활보하는 저 많은 오토바이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산 소망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찌꺼기를 한 몸에 싣고 대양으로 빠져나가는 메콩강의 물줄기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으소서.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고자 와 있는 선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을 통해 베트남인들을 주의 군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jsong007@hanmail.net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신장질환

평소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내과적 질환 조절 중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장에 병이 들면 혈중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요독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평소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내과적 질환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점차 단백뇨가 지속되면서 신장기능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된다.

우리 몸의 신장이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척도는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신장이 노폐물을 여과해내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혈액검사를 통해서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정상 성인의 사구체 여과율은 60ml/min/1.73m이고 인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이 수치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신장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으로 분류하고 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성인에서 가장 흔한 신장질환의 일차적인 원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것이다. 당뇨병이 진행하게 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에 손상을 입히고 이 때문에 미세단백질이 사구체로 빠져나가면서 신장 질환이 더욱 진행하게 된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조절인데 3개월 평균 당지수를 7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다. 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있으면 이를 철저히 조절하고 에이스차단제를 초기에 시작해서 소변에서 미세단백질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도록 한다.

고혈압이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질환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평소 적절한 혈압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그 외에도 약물, 특히 아미노그 라이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나 양쪽 신장 동맥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에이스차단제를 사용하게 되면 약물로 인한 신장기능의 이상이 올 수 있다. 또 혈중 요산수치가 높거나 심한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도 신장기능 저하가 올 수 있다.

급격한 신장기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노인층에서 볼 수 있는 탈수로 인한 신장질환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쉽게 신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미드웨스트대학교 2019년도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 학생, 강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학사 석사 박사 48명 배출, 명박 2명 미드웨스트대학교 2019년도 학위수여식

미드웨스트대학교 (Midwest University) 2019년도 학위수여식이 5월 23일 오후 3시부터 세인트루이스 본교 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이희철 교수(Academic Dean) 사회로 Rep. Bryan Spencer(미주리주 하원의원, Midwest 이사의) 기도, Dr. Lindell F. Shumake(이사장, 전 미주리주 하원의원)의 메시지 후, 현 미주리주 국무장관 (Missouri Secretary of State) Dr. John R. Ashcroft의 축사(Special Message)가 이어졌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서 48명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가 배출됐으며 특히 John R. Ashcroft 박사와 이종용 목사가 뛰어난 활동과 사회적 공로를 인정,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본교 국제이사로 선임된 영 L. 김 장로, 준 김, 이영복, Yong-U Choe 박사, 이종용 박사에게 Honor Award가 수여됐다. 또 한국의 공무원으로 본교 교환연구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1년 혹은 2년간 미국 훈련기관 연수를 끝내고 돌아가는 5명에게 Research Scholar Certificate가 수여됐다.

또한 사업용 비행기 조종사 면장 전 과정이수 후 조종사 FAA 조종사 면장을 취득하고 귀국하게 된 항공기 조종사면장과정 학생 1명에게 Professional Pilot Certificate가 수여됐다.

한편 학위수여식에 앞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교 영재교육 박사과정 주임교수 영세천 교수와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를 주강사로 글로벌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미드웨스트대학교 측은 "예년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하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각 전문 분야의 리더들을 배출해가며, 한 단계 더 발전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기독교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관리 및 사용법 (1)



김토마스 목사
(서울 CCM교회 담임)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오직 그 길만 생각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지내다 음악선생님의 강요(?)로 성악을 하게 되었고 좋은 학교들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바리톤 김만규'로 샌프란시스코오페라센터와 세계 주요 무대에서 연주생활을 하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갚게 하시는 소명에 따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과정을 마치고 고든콘웰(Gordon Conwell) 신학교에서 설교학으로 신학석사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토마스 목사로 서울에서 CCM(Christ-Centered Mission)교회를 설립하여 국내외에서 문화선교에 집중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총신신대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며 느낀 것이 많았지만 특히 설교학과 예배학을 공부하며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설교학에서 본문 해석이나 설교 작성법 등은 자세히 배웠지만 직접 설교를 하며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예배학에서는 요즘처럼 예배에서 음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배음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총장님께서 그 2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강의를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제안을 하신 것을 보면 총장님도 그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신 것 같았습니다.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설교자에게 더욱 중요 칼뱅시대엔 목소리시험 탈락자는 목사안수 못 받아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한 예배음악과 설교자들을 위한 음성클리닉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대원에서 강의를 개설하면 최소 수강 인원이 10명은 되어 강좌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못 채워서 폐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음악과 음성학 강의를 열자마자 5분 내로 수강 한계 인원인 70명이 차버려서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신학생들이 얼마나 이 2가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론을 개발하고 나름대로 얻게 된 방법으로 지금 수많은 목회자와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칼뱅시대에는 목소리 시험에 탈락하면 목사안수를 주지 않을 정도로 설교자에게 목소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교에서는 목소리 사용법이나 관리법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메리디안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연설이나 설교의 내용은 7%만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는가에 따라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 7%라면 그것에만 모든 시간을 써버리는 설교학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더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음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성대에서 소리(Sound)가 만들어져서 모음과 자음이 합쳐져서 입으로 나오는 음성(Voice)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음성이 바로 말입니다. 다음호에서는 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아메리카지역 현장의 구조변화와 중남미지역 선교의 새로운 모델 개발(1)



강성철 선교사
(아메리카 지역선교전략연구소)

들어가는 말

얼마 전에 미국에서 행정을 전공하였다는 분이 브라질을 다녀간 적이 있다 그분에게 행정은 사람관리와 재정관리, 건물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파송교회와 GMS(Global Mission Society) 그리고 선교사와의 관계는 교회에 주어진 선교사명을 수행하는데 거룩한 삼각관계이다.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도 선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의 목회자가 전문성이 없으므로 GMS선교전문 기구를 만들어 교회와 선교사를 잇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좋지 않은 풍토가 조성되어 우리가 선교재정을 후원하기에 우리가 무엇인지 결정하면 선교사는 따라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생각한다.

사회적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는 선교를 바로 할 수 없다. 선교지 문화 이해 부족과 현지인과의 문화적 소통이 안되는 상황에서 본부가 선교사를 주장하려는 일은 이 시대 문화나 선교지 현장에 맞지 않는다. 결국 사역

로 합병되고, 얼마 안 되어 미주와 캐나다를 포함하여 아메리카 지역으로 합병이 되었다. 중남미지역을 전략적으로 하나로 묶어 사역을 하려고 각 나라 각 선교사들과 연락을 하고 사역지와 사역을 소개할 장을 만들면서 중남미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실정을 살피니 얼마나 외롭게 사역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선교사와 선교사간의 교통이 없으며, 선교사와 지역 및 지부와의 관계도 소원해 있으며 본부와의 관계도 생활비를 주고받는 상태에서 더 진전을 못하고 상호불통이 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부를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장 오정호 목사가 소집 지역위원, 지역장, 각 지부장이며 연석회의 중 아메리카 지역선교부 운영과 시행을 위한 방법과 과제 연구, 각 분야 코디네이터의 역할, OMTC선교훈련원의 활성화 등을 의논하면서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는 각 지부와 지역장 및 코디네이터들이 서로 소통하면 함께 사역하는데 우선 필요한 아메리카지역 선교백서가 필요함을 절실히 공감하며 선교전략연구소에서 선교백서를 편찬을 위촉하였다.

2. 아메리카 지역 선교지

아메리카 지역위원회(위원장 오정호)의 결의(1) 아메리카 지역연구소가 GMS, 2019 아메리카지역 선교백서를 편찬하였다.2) 전철영 선교총무의 글에 보면 2018년 12월 31일 현재 GMS교단선교부는 101개국에 1415 가정, 254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아메리카 지역선교부는 135가정, 231명이 된다.

2)2019년 1월20일 GMS 아메리카 지역선교부 발행, 발행인 오정호 아메리카 지역위원장, 편집인 지역대표 조운제 편집위원, 선교전략연구소 임원 및 각 지부장이 편찬하다.

3. 아메리카 지역현황 및 선교의 동향

A. 각 지역 현황

이 내용은 GMS 2019, 아메리카 지역 선교백서에 실린 아메리카지역 각 지부장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지역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GMS선교전문기구 만들어 교회와 선교사 잇는 교량역할

과 전략이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현장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계 각 지역에 현장 구조를 알아야 하고, 구조변화 조정을 위해서는 선교전략 연구소가 제대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본다.

아메리카지역 현장구조를 설명하면서 선교의 동향과 아메리카 지역 선교사역 새로운 모델개발을 다루고자 한다.

1. 아메리카지역 현장의 구조조정(구조변화)

GMS아메리카지역 현장중심의 구조조정에 의해 자연적으로 팀 사역에는 많은 변화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인류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급변한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선교사역이 변화 할 수밖에 없다. 선교사역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종교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세상과 사역의 변화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선교사들을 요구한다. 최근에 브라질 지역이 중남미 지역으

다지부 8가정에 14명, 미국지부 44가정에 64명, 멕시코지부 9가정에 15명, 중미지부 9가정에 14명, 카리브지부 6가정에 11명, 페루지부 5가정에 7명, 브라질 아마존지부 7가정에 12명, 브라질 남부지부 21가정에 37명, 볼리비아지부 9가정에 16명, 파라과이 지부 7가정에 14명, 아르헨티나지부 10가정에 17명이다.

GMS아메리카 지역 조직은 다음과 같다.

△지역장: 조운제 △부지역장 노시영(남), 양주림(여) △코디네이터-신임선교사 및 언어 박동주(포어), 김기돈(스페인어) *멤버케어 및 자녀교육 최윤희 *사역지도 및 조정 안석렬 *행정 및 재정 김선근 *동원 김영수 *여성 *위기관리센터장 부지역장 및 각지부장 OMTC훈련원 이병구 *선교전략연구소 소장 강성철 △회계 박동주 △코디네이터 김선근 △연구위원 각지부장

1)2018년 10월 22-26일까지 GMS 지역장 및 지부장 연석회의 마지막 날 "중남미지역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에서 중남미지역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확대되어 미국과 캐나다지

1) 캐나다 지부

캐나다는 북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나라이다. 이 나라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어류, 많은 삼림, 석유 등 광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캐나다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국가원수로 인정하고 있다. 수 백년 동안 캐나다는는 광대한 식민지는 영국에 의해 통치되었다. 퀘벡주는 1763년까지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다.

1800년대 후반에 이 식민지들은 점차 캐나다 자치령을 형성하여 통일되었고, 완전한 독립은 1931년에 되었다. 최근 캐나다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고립된 퀘벡으로부터 독립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다. 캐나다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세속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종교와도 의미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2019, 아메리카 선교백서, p.11).

kangsungchuel@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몽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과: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k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주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2Fl,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1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우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종교기도: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ama Rd, Manhasset, NY 1103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영어로 보는 성경 (20)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Psalm 23:1-4

1)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2)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3)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4)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NIV 2011)

WORD & IDIOM

* shepherd: 목자 * lack: 부족하다 * lie down: 드러눕다 * green pastures: 푸른 초장 * lead A beside ~ B: A를 B 옆으로 인도하다 * along the right paths: 옳은 길을 따라 * for his name's sake: ~ 그의 이름을 위하여 * even though ~: ~ 일지라도, ~ 에도 불구하고 * darkest valley: 가장 어두운(음침한) 골짜기 * rod: 막대기, 장대 * staff: 지팡이 * comfort: 위로하다.

GRAMMAR

1)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주님(은) 이다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하다 아무 것도 없음 => 주님은 나의 목자 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 my shepherd 다음의 ضم표가 <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등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I lack nothing = I don't lack anything.

2)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그가 나를 만들다 눕다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인도하다 조용한 물가로

3) he refreshes my soul.

그가 나의 영혼 소생시킨다. =>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그가 나를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 위의 문장은 주어(S) +동사(V)가 들어있는 독립된 문장 세 개가 (,)로 연결하여 하나의 마침표로 끝나고 있다. 그러나 문장이 길지 않음으로 우리말의 경우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He makes me lie down = make + (목적어) + (원형동사)의 구조로 된 5형식 문장이다. 이 이 경우 make를 사역동사라고 하며 <목적어가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Ex)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그는 나를 인도하신다 옳은 길을 따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 그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4)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하더라도 내가 걸어가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

I will fear no evil.

나는 두려워 할 것이다 해롭지 않은 것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것들이 나를 위로하다 => 내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며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 walk through는 어느 곳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구동사이다. * I will fear no evil = I will not fear evil. * (:) 이하는 for you are with me를 보충설명하는 내용이며 they comfort me 에서의 they는 your rod and your staff를 가리킨다. 이 문장의 경우 우리말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나누어 의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STUDY & THOUGH

■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육적인 만족과 안정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케 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한다. 때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어둡고 험한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인생길에서도 영적인 안위와 만족, 그리고 참 기쁨을 주시는 분, 바로 그 분이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에게도 참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 Left to themselves, sheep lack everything, but with our Shepherd nothing is lacking.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왕상13:1-2)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왕 앞에서 멸망을 선포하는데 "단아! 단아!"라고 부르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왕이나 그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지 않고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제단을 향해 선포한다는 것을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우상 숭배를 한 주동자나 참여자나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930년경

이니라 약300년 후 이 예언대로 요시아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 하는 제사장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늘 순결할 것을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신앙의 순결을 놓치면 모두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한분만 신실하게 경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왕상13:3-5)

요시아왕 때 일어날 예언은 300년이 지난 후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단이 갈라질 것이라는 예조도 그 자리에서 이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소리치던 그 손도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습니다. 만약에 왕의 손이 말라버리지 않았다면 이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 사람을 잡으라고 하는 여로보암왕의 편 손이 즉시 말라버리는 바

람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을 손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에게는 늘 하나님의 기적과 직접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에게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왕상13:6)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사람이 잘못을 해서 징벌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병이 낫기를 부탁하며 기도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

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약5:15-18).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간절히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 응답을 통하여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목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왕상13:7-10)

여로보암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가서 쉬고 예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가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왕이 뇌물로 회유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해 같이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그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음 구절에 보면 속임수에 빠져 이 명령을 어겨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정 오늘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 뱀엘에 한 늑은 선지자가 살더니(왕상13:11)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사명을 잘 마치고 즉시 남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늑은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은 신앙의 결단이 없는 선지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엘에 한 늑은 선지자가 살더니" 뱀엘은 지금 우상의 도시

입니다. 당시 신실하고 순결한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늑은 선지자는 아들과 함께 그냥 뱀엘에서 살았습니다. 주의 종들은 죄악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토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왕상13:12-19)

18절에 보면 사명의 결단력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늑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는지 왜 속이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떡을 마시고 물을 마시우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를 속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선지자는 하나님

의 이름으로 거짓말도 잘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신앙의 결단력 없이 세상에 섞여 살면 결국 타락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5:40(토) Tel: (213)481-2779 / facebook.com/scrc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Youth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시(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3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cl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 2:00(화-토) 2: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838 S. Western Ave., Torrance, CA 90508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론 Tel: (714)446-6200, www.gracemj.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csamsungchurc.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ly.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례주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하나님이 주시는 정금 같은 아름다움!

TCW, 제인 루비타가 전하는 여성의 참된 미(美)의 시작

미디어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극도의 다이어트, 격한 운동, 수술로만 겨우 도달할 수 있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가 정의하는 미(美)란 "완벽한 외모"다. 그러나 그 기준에 미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이 성형수술에 쏟아 부은 돈만 해도 34억 달러에 이른다.

사회적 추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기적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참된 아름다움이라면 미(美) 자체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움은 우리 외면과 내면이 모두 그분의 광채로 빛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Today's Christian Women, Wrapped in Gold: Our beauty is a reflection of God's brilliance).

하나님의 성전

구약 시대에는 성전 가구들을 금과 동으로 감쌌기 때문에 양초와 램프를 밝히면, 그 빛이 온 성전을 밝게 비추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 글라스가 간절했을 것이다. 금 빛으로 밝게 빛나는 성전은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Shekinah-glorry: 친백성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했으며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상(聖像)이었다.

우리의 얼굴, 몸, 외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성상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했다(고전6:19).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와 필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선한

의도에서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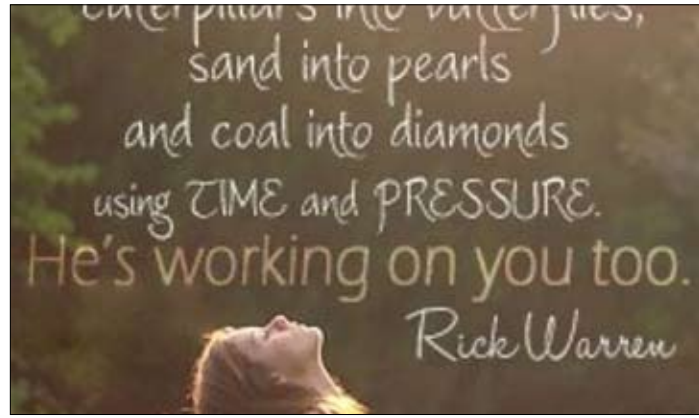
우리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은 사람들의 인정, 사랑, 결혼,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다. "몸에 관심 좀 가져. 안 그러면 어디서 살 건데?" 같은 티셔츠 문구처럼, 몸 관리는 바로 생존의 문제다.

세상의 거짓말에 집착하지 않는 바람직한 자기관리법은 다음과 같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아하지 않고 매력적인 옷차림.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을 건강하고 정결한 몸에 모실 수 있다.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외적 '영광'은 더욱 위대한 영광을 가리킬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적절한 신체관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건강한 자기 모습에 자신감을 심어준다. 그 결과 자신에게 집착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충실하게 된다.

시편 45장에서 시편 기자는 왕과 그의 신부에게 시를 선사한다.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9절) 신부는 금으로 된 성전의 장식물처럼 금으로 몸을 치장했다. 신부를 향한 왕의 감정은 단지 번쩍이는 옷 때문



외면과 내면 모두 하나님의 광채로 빛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하고 자기관리와 함께 하나님의 단련 받아야

이 아니었다.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왕이 네게 폭 빠졌다"(The king is wild for you). NIV성경에서는 "매혹되었다"(enthralled)라고 표현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 자신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여성이 아름다운 것은 그녀의 어머함 즉 외모나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폭 빠지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달라진다. 활력이 넘치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한다.

과거는 상관없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한가보다는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부정적인 목소리와 경멸들이 우리 생각을 흐리게 만든다. 우리는 무섭고 소름 끼치며 우

재라는 사실을 모른다. 사람들이로부터 이용당하고 외모 때문에 위협한 일을 겪고 가족이나 남편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했다.

내 친구 폴린은 갈색 곱슬머리에 사슴 같은 눈과 활발한 성격의 지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근친상간적인 행동 때문에 그녀의 머릿속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폴린은 45kg밖에 안 나가는 가녀린 몸매 속에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 그녀는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코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다.

시편 45장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신부에게 말한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이다." 치유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 위해서 폴린은 과거는 과거로 접어둬야 했다. 과거의 대가인 고통을 깨닫고 가해자를 용서하며 회복과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사랑스러움이라는 형태로 치유가 일어난다. 사

각하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매일 더욱 아름답게 변한다. 하나님의 단련

오래 전에 리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가족 문제로 빛을 잃고 있었다. 리나는 의기소침한 상태로 매순간 죽어가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에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딴 사람이 줄 알았다. 몸무게나 머리색 등 겉모습은 전과 똑같았다. 그러나 내면에서 아름다운 광채가 났다.

"빛이 나는 걸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상담을 통해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침내 깨달았어요." 뻔 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리나를 만나면 내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성전처럼 빛났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욘 23:10)던 욘의 말처럼 리나는 금으로 된 옷을 입은 왕의 신부 같았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참되고 완전한 사랑은 간접적으로는 불완전한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당신을 금으로 임히게 하라. 왕이 당신에게 흠뻑 빠졌다는 사실을 알 때 당신은 금같이 빛날 것이다.

필자인 제인 루비타(<https://janerubietta.com/>)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크리스천 여성들을 상대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책 소개

"알기 쉬운 성경교리"

저자 윤철환 목사



성경중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위해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성경교리를 담은 책 "알기 쉬운 성경교리"(Great Truths of the Bible)가 지난해 출간됐다.

저자 윤철환 목사는 2018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우

며 "짧은 기간 크게 성장한 한국교회지만 성경에서 떠나 세속주의, 신비주의, 기복신앙 그리고 이단사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성경의 뼈대 같은 성경교리를 바로 알아 바른 신앙과 생활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머리말에서 강조했다.

추천사를 쓴 김만우 목사(필라델비아장로교회 원로)는 "웨스

트minster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의 맥락을 따라 계시론부터 종말론까지, 특히 구원론을 자세히 설명한 개혁신학적 저서"라며 성경공부 교재로도 추천했다.

성기호 목사(전 성결대총장)는 "초판이 짧은 시일 내 소진돼 재판됐다"며 "교리뿐 아니라 신자가 갖춰야 할 세계관과 인

생관도 소개하고 있다"고 추천했다.

또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교회는)는 추천사에서 "얕은 자리에서 읽어 내려갈 수 있을 만큼 기독교진리를 쉽게 저술한 점,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이 아닌 말

개혁신앙에 바탕한 성경교리를 쉽게 써 바른 신앙생활 안내

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삼은 점, 저자의 영성뿐 아니라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 점" 등을 언급했다.

책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성경교리를 간추려 체계적으로 기록했으며 설교형식이지만 성경구절과 참조구절들을

많이 기록해 목회자들의 설교 작성에도 도움이 되게 했다. 성경은 개혁개정판을 사용했다.

책은 총 8장으로 1장 계시와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등 2편을, 2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등 12편을, 3장 천사는 '선한 천사', '악한 천사' 등 2편을, 4장 인간과 죄에는 '처음 창조된 사람' 등 6편을 수록했다.

5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등 10편을, 6장 성령과 구원에는 '성령과 그의 하시는 일' 등 13편을, 7장 교회와 신앙생활에는 '나

는 그리스도인가' 등 5편을, 8장 마지막(종말)에 될 일은 '육체의 죽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등 2편을 수록해 총 52편의 설교를 담았다.

저자 윤철환 목사는 성균관대, 장신, 아세아연합신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영락교회, 영광여고, 문화교회, 방학동교회 시무 후 1988년 도미, 필라델비아장로교회(구 영락교회) 17년간 시무하고 은퇴했으며 가족중심 빌립보교회를 설립, 아프리카 지역중심 선교를 하고 있다. 현재 필라 인터넷복음방송 고문과 설교자로 사역하고 있다.

▲연락처: (215)527-2250 chulhwanyoon@gmail.com (유원정 기자)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사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lifebook.co.kr	
말씀사 714-530-2211	bethelbook@hotmail.com	
베델서적 949-854-9191	www.joyla.com	
조이 서적 213-380-8793		